

2020년 5월 25일

코로나사태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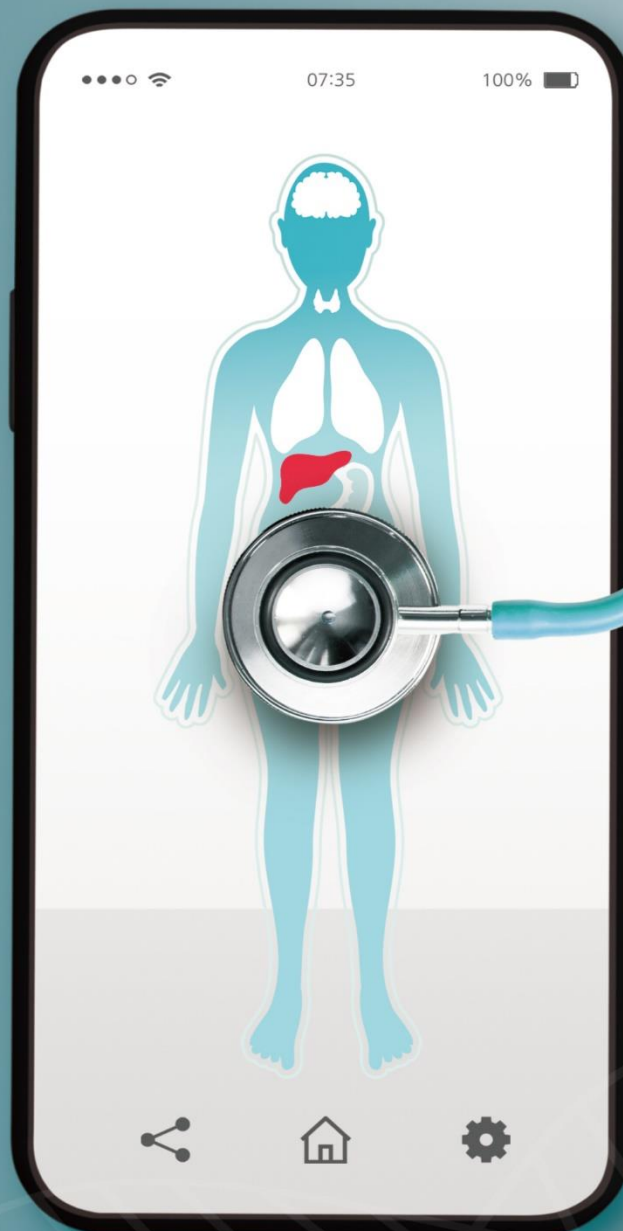
디지털 헬스케어

Healthcare 문경준

02) 6915-5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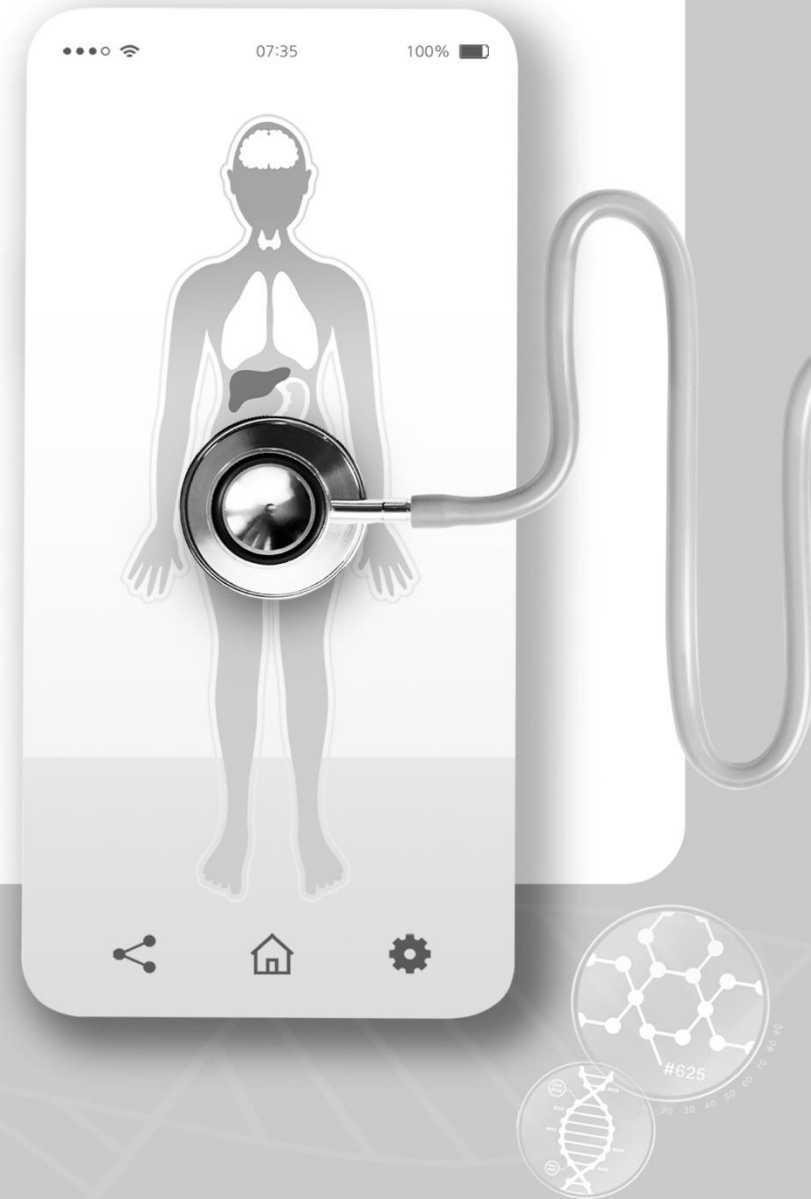
juninearth@ibks.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ontents

- I. 원격의료 시장 개화 움직임
- II. 코로나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 급증
- III. 원격의료 관련 규제 및 이해관계
- IV. 원격의료 국가별 현황
- V.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사례
- VI.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 비상장 기업들
- VII. 헬스케어 산업 향후 전망
- VIII.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 분석
 -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케어랩스, 인성정보





Executive Summary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 원격의료 시장 개화 움직임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720억달러 규모로 추산됨. 2015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790억원으로 최근 4년간 117.7% 성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관련시장도 비례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40%를 상회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향후 5G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고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사물인터넷(IoT)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현재의 높은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용비용 절감 효과 기대. 의료비가 비싼 미국의 경우 대면 의료 1회당 평균 비용은 115달러이며 원격의료의 1회당 평균비용은 이보다 크게 낮은 38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메일 서비스 출현으로 메시지 전송이 극단의 효율성으로 우편산업을 붕괴시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극단적인 예 이지만 기술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 급증

- 디지털혁신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산업 영역이 바로 의료서비스 영역.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의 높은 필요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
- 이번 코로나사태로 정부는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 허용. 비상사태에 원격의료 서비스 필요성과 그 수요를 확인한 것 만으로도 의미있는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

관련 기업

- IT인프라 개발/구축 역량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은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성장이 제한적이었음. 향후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개화 시점에 계단식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헬스케어 산업 영역에서 B2C와 B2B 비즈니스를 아우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유비케어와 중소형 병원 및 약국 의료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지배적 시장 지위를 확보한 비트컴퓨터를 최선호주로 인성정보와 케어랩스를 차선호주로 제안.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시장 개화 움직임

Healthcare

문경준

02) 6915-5776
juninearth@ib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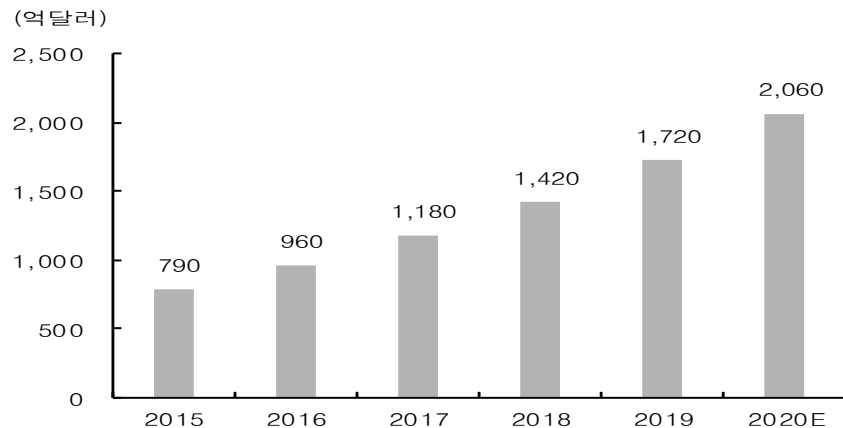


원격의료 시장 개화 움직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 1,720억달러로 추정, CAGR 약 20%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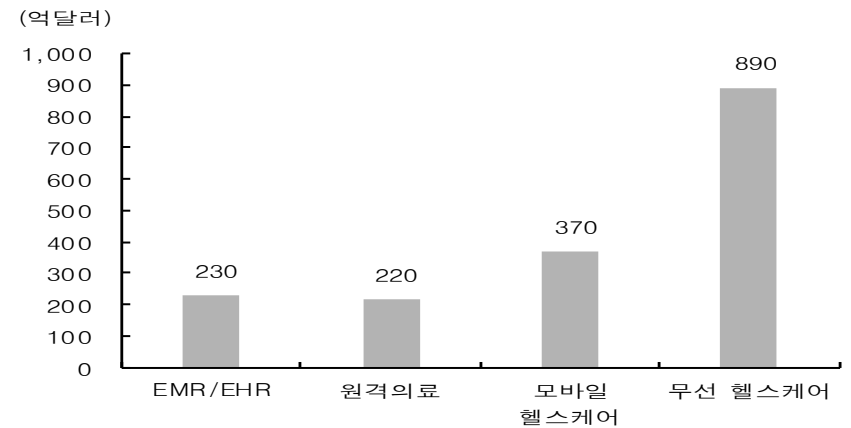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720억달러 규모로 추산됨. 2015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790억달러로 최근 4년간 117.7% 성장.
- 디지털 헬스케어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무선 헬스케어가 890억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모바일 헬스케어가 370억달러, 원격의료 220억달러, EMR/EHR이 230억달러를 차지.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추세에 비례적으로 관련시장이 성장하였으며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40%를 상회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헬스케어 시장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의사라는 전문인력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이성이 존재.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발전하기 보다는 지역별/국가별 또는 해당 국가의 정치 성향에 따라 특징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해 왔음. 원격의료 시장은 국가별로 산업 규모 및 규제에 차이가 있어 코로나 사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음.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 추이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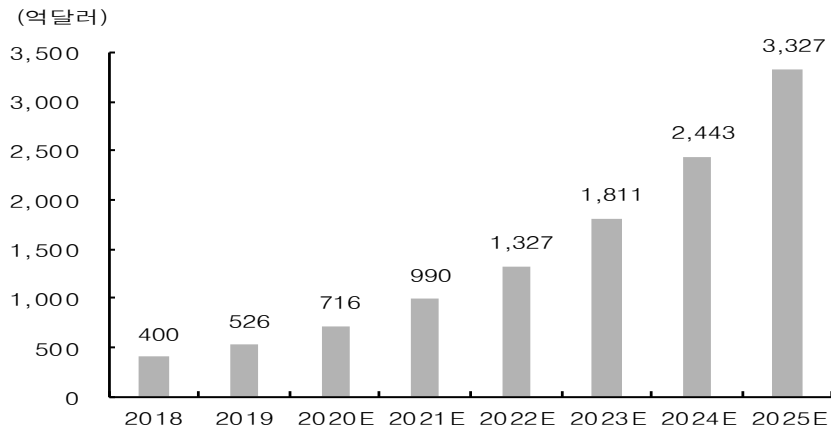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원격의료 시장 개화 움직임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연평균 성장률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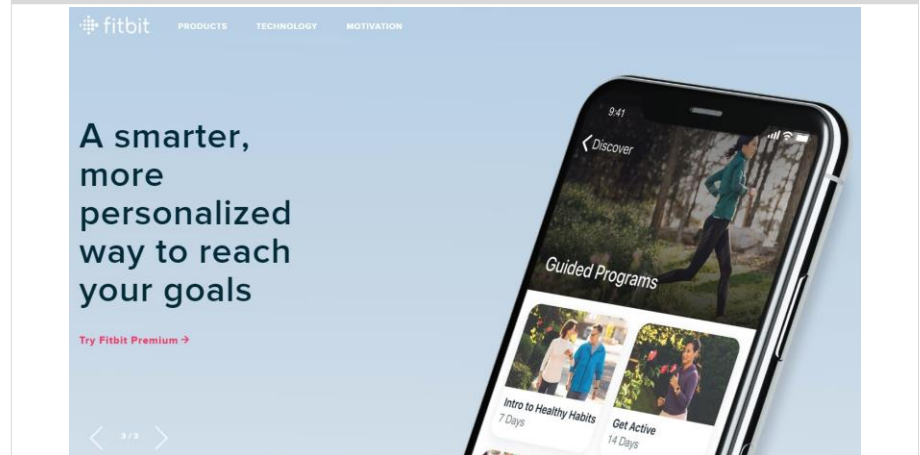
-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관련시장도 비례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40%를 상회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향후 5G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고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사물인터넷(IoT)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현재의 높은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Statista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5년에 3,3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모바일 피트니스(fitness)시장으로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2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24년에는 약 1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서 관련 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짐. 모바일 헬스케어 대표기업중 하나인 fitbit(NYSE 상장사)의 최근 기업가치는 약 18억달러, 최근 결산 실적은 매출액 14.3억달러 순손실 3.2억달러 수준. 아직 손익을 맞추고 있지 못하지만 성장성 관점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부여받고 있음.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모바일 헬스케어 전문기업 – fit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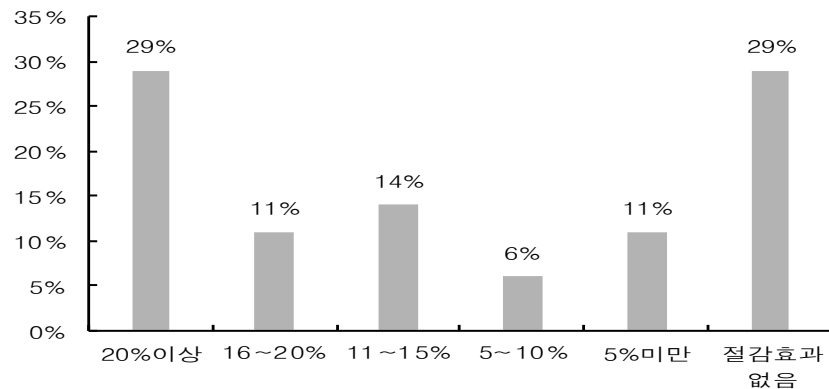
자료: fitbit, IBK투자증권

원격의료 시장 개화 움직임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규제로 관련산업 형성이 어려움 vs 글로벌 시장은 원격 의료 도입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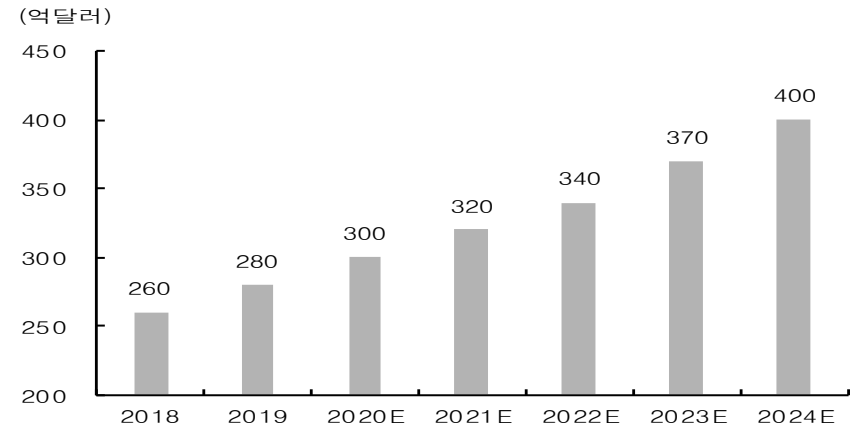
-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약 22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25년에는 500억달러로 현재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 기대. 의료비가 비싼 미국의 경우 대면의료 1회당 평균 비용은 115달러이며 원격의료의 1회당 평균비용은 이보다 크게 낮은 38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메일 서비스 출현으로 메시지 전송이 극단의 효율성으로 우편 산업을 붕괴시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극단적인 예이지만 기술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원격진료는 1990년초부터 허용되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운영비용 절감 측면에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의료기관의 운영관리 시스템 역할을 하는 EMR/EHR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280억달러로 추산되며 2024년까지 4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IT인프라 선진국(북미/유럽/일본/한국 등)의 EMR 도입률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에는 EMR/EHR 고도화 투자가 진행중에 있음.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설문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글로벌 EMR/EHR 시장 규모는 증가 추이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원격의료 시장 개화 움직임

4차산업혁명위원회 - 원격 진료 관련 규제 개혁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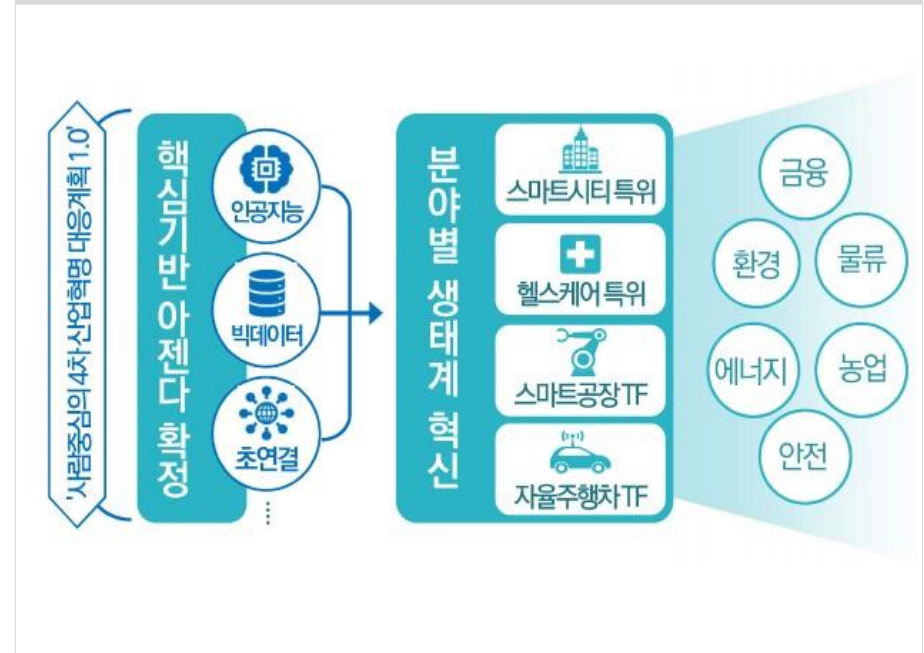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민간주도형 자문회의로 4차산업혁명 관련 아젠다를 심의조정하고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기구.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의료서비스 산업에도 언택트(비대면진료) 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건강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어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의료서비스 규제 개혁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

대통령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도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IBK투자증권

4차산업 분야별 생태계 혁신 - 헬스케어 특위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IBK투자증권

원격의료 시장 개화 움직임

B2C 헬스케어 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출현

- 원격의료 산업의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B2C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업체들의 출현이 증가.
- 한국은 공적의료보험 기반의 국가로 의료보험 급여 여부가 시장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B2C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들은 규제가 많은 급여 영역 그리고 약사법/의료관련법에 충돌되는 의료서비스 영역 이외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 B2C 기반의 플랫폼으로는 굿닥, 똑닥, 모두닥 등이 있으며 현재 굿닥과 똑닥이 80% 이상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의료 서비스 플랫폼도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유사한 사업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무료 정보 서비스를 통해 자사 플랫폼의 이용자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 그리고 강화된 플랫폼에 비즈니스 모델을 올려 수익성을 창출. 향후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도 인터넷 플랫폼 업체와 유사한 형태로 소수의 플랫폼이 독과점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케어랩스의 헬스케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 굿닥



자료: 케어랩스, IBK투자증권

병원에서 진료접수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 똑닥

삼성365소아청소년과
SAMSUNG 365 Pediatric Clinic

삼성365소아청소년과
접수 필수앱 '똑닥'

삼성365소아청소년과 편안한 **진료접수**로
병원 내 대기시간을 줄이며,
실시간 대기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똑닥에서 검색시 [삼성삼육오소아청소년과] 로 검색해주세요 :)

자료: 똑닥, 삼성365소아청소년과의원,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코로나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 급증

Healthcare

문경준

02) 6915-5776
juninearth@ibks.com



코로나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 급증

규제로 인해 사업활동이 어려웠던 원격 의료 시장이 코로나사태로 시장에 대한 관심 급상승

- 코로나사태로 각국정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중. 또는 강도 높은 봉쇄정책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대면 환경을 전면 차단. 큰 틀에서 비대면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번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활용도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혁신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산업 영역이 바로 의료서비스 영역.
-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의 높은 필요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확산 또는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확산 시 의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과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에 따른 - 병의원 관련 홍보 안내

자료: 이춘택병원, 아이누리한의원, IBK투자증권

Corona Lockdown으로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 운영에 차질



자료: Naver, 보도자료, IBK투자증권

코로나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 급증

코로나사태로 인해 -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 원격의료는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현재 시점에서는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며 비대면 의료서비스 규제로 인해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 이번 코로나사태로 정부는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 허용.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한시적 허용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향후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종료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 의료서비스 실무에서는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기저질환 보유 환자를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전화 상담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스마트폰 화상통화기능(ex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진료비를 카드 또는 송금을 통해 수납하며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형태로 진료가 마무리.

보건복지부의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공지(2월24일부터)

●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추진(2.24~)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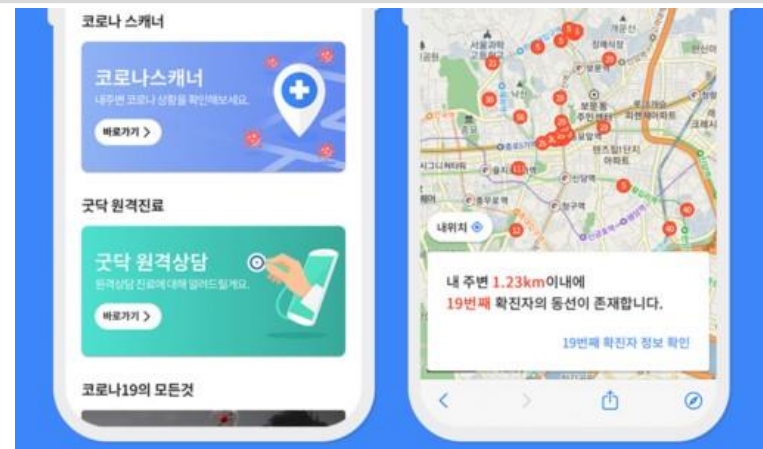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처방 및 가족 등 보호자 대리 처방 가능

- 희망 의료기관(별도 신청 불필요)
- 수가 산정(진찰료 100%)
- FAX, 이메일 등으로 환자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 환자·약사 협의하여 약 수령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IBK투자증권

굿닥에서 제공하는 원격상담 서비스 & 코로나스캐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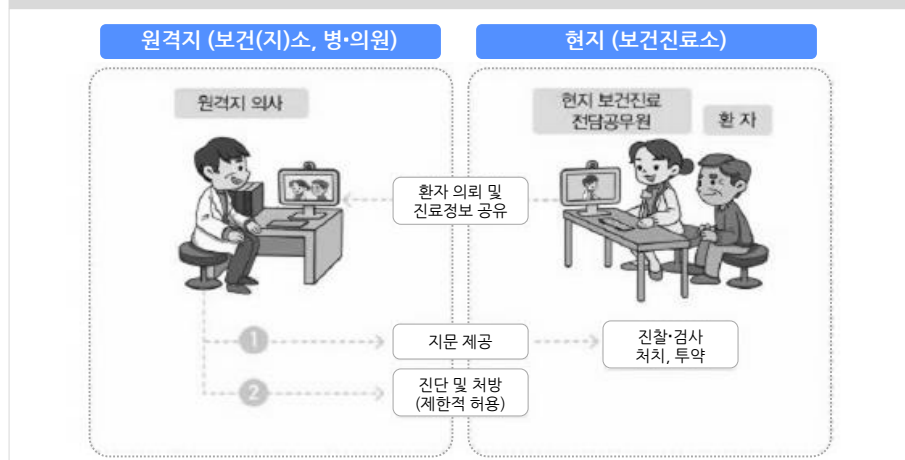
자료: 케어랩스, 굿닥, IBK투자증권

코로나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 급증

코로나사태 이전 - 제한된 환경에서의 원격의료 정책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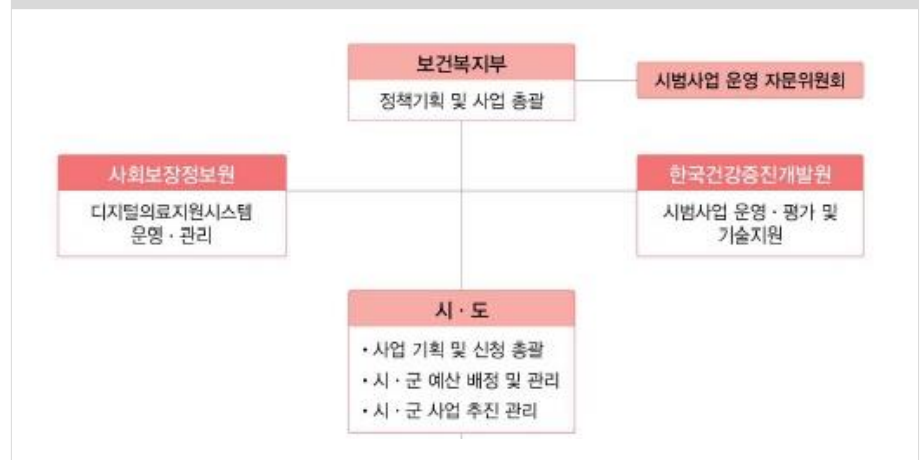
- 환자 진료에 대한 기록은 원격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관리했을 것으로 판단. 아직은 원격의료에 허가된 의료서비스가 아니고 원격의료 허용도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관련 투자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
- 하지만 비상사태에 원격의료 서비스 필요성과 그 수요를 확인한 것 만으로도 의미있는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医료를 의료인들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원격으로 소통하는 것에 한정. 원칙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기 어려운 상황에 한정되서 원격의료 관련 정책사업은 꾸준히 진행왔음.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원격의료라는 단어 보다는 디지털의료시스템 구축 또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이 그것.

의사와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간의 원격협진 모형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BK투자증권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및 유관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BK투자증권

코로나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 급증

코로나사태 이전 - 제한된 환경에서의 원격의료 정책사업 시행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CT 헬스케어팀이 참여하는 정책사업인 2019 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서벽지 등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협진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년 초부터 여러 차례 진행. 하지만 매번 의료계와의 충돌로 실제 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정책사업 히스토리

시행년도	추진내용
1988	서울대병원 - 연천보건소 간 원격영상 진단 시범사업 실시(국내 최초)
2000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 의사 -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2002	의사 -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02.3.30 의료법 개정)
2005.09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의사 - 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법무부)
2007.10	격오지 부대 장병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국방부)
2008.09	산간/도서(서산, 보령, 영양, 강릉)지역 원격의료 시범사업(행정자치부)
2009.02	독도경비대 - 경찰병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입(경찰청)
2010.04~2013.03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산업통상자원부)
2014.09~2015.03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 시범사업(보건복지부)
2015.04~2016.03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 시범사업(보건복지부)
2016.04~2016.12	경증, 만성질환자 등 대상 의사 - 의료인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보건복지부)
2017.01~2017.12	경증, 만성질환자 의료취약지/취약계층 대상 의사 -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1~현재	의료취약지/취약계층 주민 대상 의사 -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관련 규제 및 이해관계

Healthcare

문경준

02) 6915-5776
juninearth@ibks.com



원격의료 관련 규제 및 이해관계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 vs 의료계의 입장 충돌

-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산업이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 원격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여러 차례 논의 되었지만 그때마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 의견과 충돌.
- 의료계의 기본적인 주장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으로써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
-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로 의미를 축소하고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 규제가 완화되면 원격医료를 전문으로하는 의료기관 출현, 비윤리적 진료행태, 지역 중소형 병원 붕괴 등 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
- 원격의료는 시간/공간의 제약을 없애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어 접근성 기반으로 운영되는 동네 중소형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고 결국 의사 대면이 필요한 응급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

원격의료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료계



자료: 보도자료, IBK투자증권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논리근거 by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대상	예상되는 상황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개념이 모호하여 다수의 환자가 만성질환자로 둔갑할 것(code creeping), 의사들간 윤리적 다툼 발생 예상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의미가 모호하여 거동이 어렵다는 환자 급증할 것
의료기관까지 거리가(병의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거주자 확인 불가, 악용 따를 것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현재도 지켜지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결국 모호한 규정은 악용될 것

자료: 대한의사협회, IBK투자증권

원격의료 관련 규제 및 이해관계

원격진료에 대한 시장 수요 확인 & 높은 경험자 만족도 >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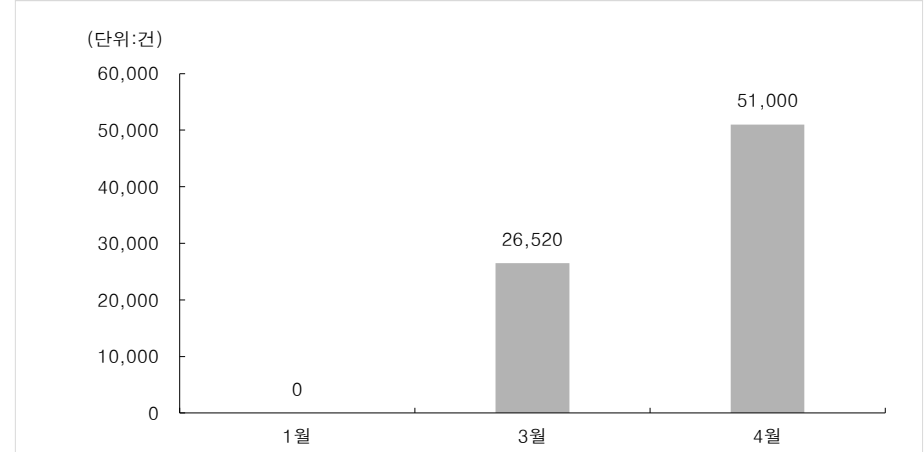
- 의료계는 원격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입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결국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 코로나사태로 전화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됨.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4월 12일까지 3,000여개 의료기관에서 10만3천건 이상의 전화진료가 이루어짐. 이번 한시적 원격진료(전화진료) 허용으로 동네 병원에서 진행된 원격진료 수는 6만건 이상으로 파악됨.
- 은평성모병원에서 실시한 전화진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인과 환자의 답변이 극명한 차이를 보임. 전화진료 경험환자 87%가 진료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한 반면 의료인은 85%가 불만을 표시.
- 의료계와 환자 그리고 정부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시장 수요는 큰 것으로 판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는 시장 논리를 고려할 때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결국 상응하는 공급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

국내 병원에서 전화진료 실시 안내문



자료: 수원월스기념병원, IBK투자증권

코로나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진료 건수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IBK투자증권
주: 매달 첫주 기준

원격의료 관련 규제 및 이해관계

원격진료 관련 당정청 최근 주요 발언 및 보도자료들

-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 스마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 보건 시스템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 -
- 대면 의료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보장과 감염 우려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부터 전화 진료를 허용하면서 최근 석달 동안 중요한 성과를 냈다 - 청와대 관계자 -
-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 원격의료의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원격의료, 한국판 뉴딜 과제중 하나” 올 가을전 제도화 나설 듯 - 동아일보 -
- 10년 헛돌던 원격의료, 靑 긍정검토 - 조선일보 -
-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
- 원격의료 최근 긍정 평가 -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
-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게 맞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
-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한다 - 문재인 대통령 -
-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
-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의료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의 우수성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원격의료를 차세대 먹거리 후보군으로 육성해야 - 여권 관계자 -
- 비대면 의료가 왜 의료 영리화 틀에 얽매이는지 모르겠다. 비대면 진료는 지역 격차 해소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에게도 좋다 -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자료: 보도자료, 미디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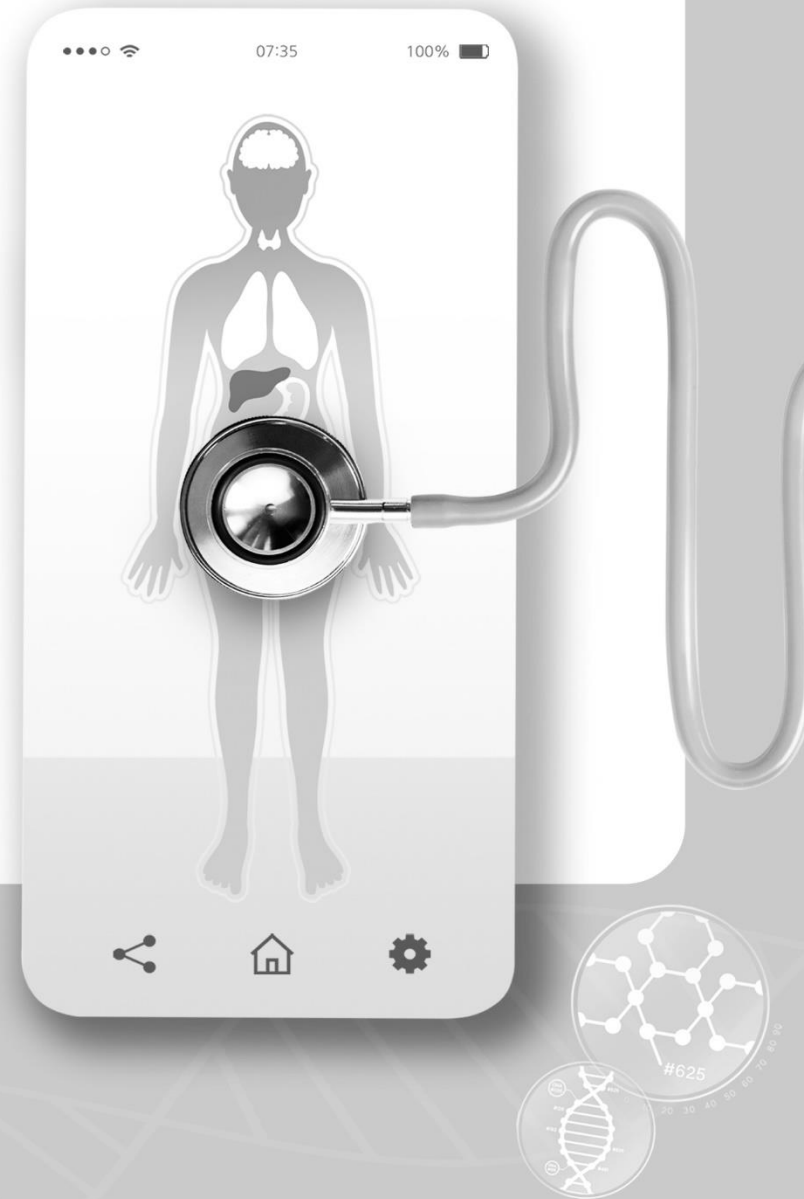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국가별 현황

Healthcare

문경준

02) 6915-5776
juninearth@ib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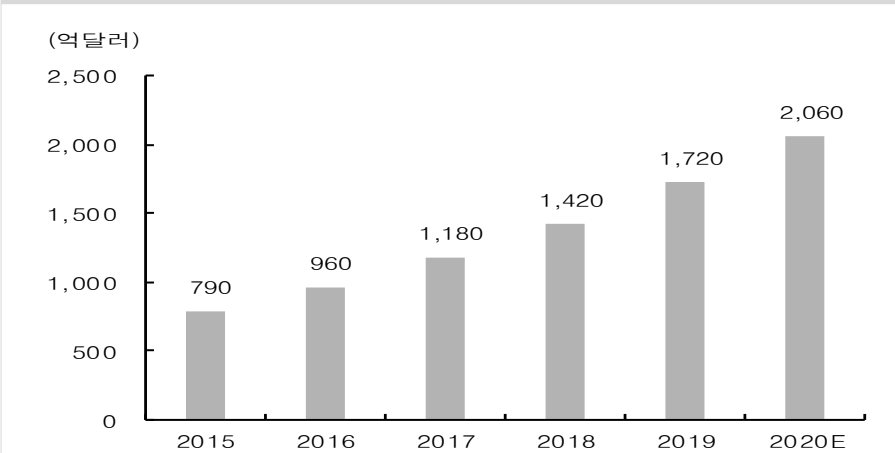


원격의료 국가별 현황

美 1990년대 인터넷망이 보급되는 시점부터 원격의료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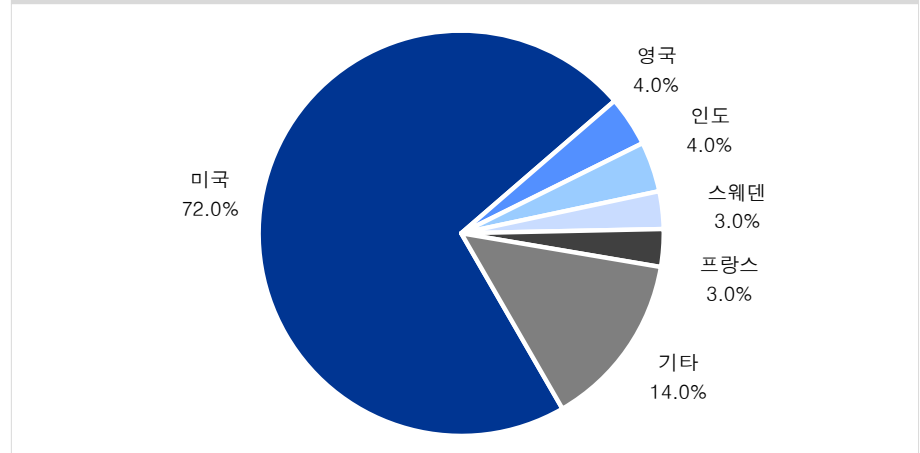
- 미국은 1990년대 인터넷망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원격의료 도입 시도. 정부차원에서도 법제화를 지원해 원격의료 산업이 타 국가대비 이른 시점에 형성되기 시작.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진료의 약 10~20%가 원격진료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 최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만성질환 환자 대상 또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의료서비스가 고도화 되는 추세.
- 미국은 의료 데이터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정보의 저장 및 전달 그리고 의료기기 시스템 허가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음. 美 FDA는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디바이스 인증을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민감도 순으로 Class III(높은 민감도)에서 Class I(낮은 민감도)의 3단계로 구분해 왔음. 하지만 2015년 오바마케어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관련 의료정보 활용방안 법안이 마련되면서 관련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고 있는 상황.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 추이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글로벌 Top 100 헬스케어 국가별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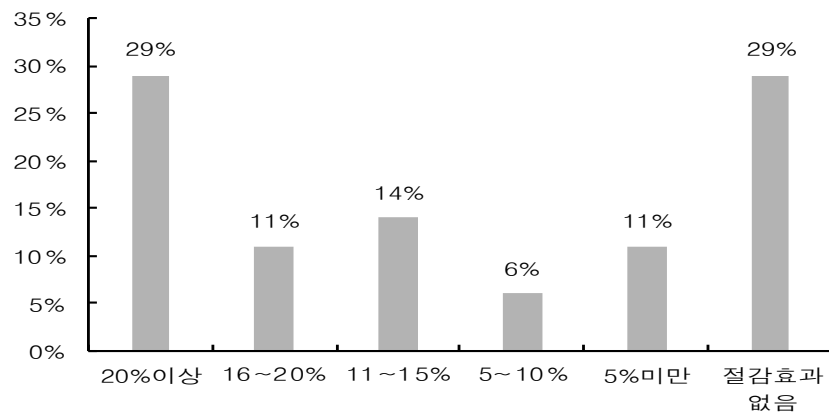
자료: Pitchbook, KPMG Analysis, IBK투자증권

원격의료 국가별 현황

美 1990년대 인터넷망이 보급되는 시점부터 원격의료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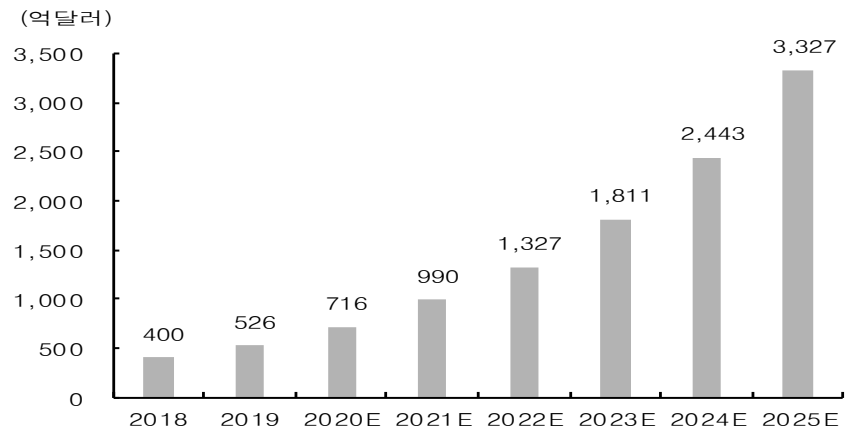
- 미국에서 의료에 관한 법안 제정은 기본적으로 주(State)의 권한이며 주별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규정과 허용 내용에 차이가 존재. 하지만 큰 틀에서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의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2000년 초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며 타 국가 대비 산업 성장이 빨랐음.
- 2014년에 연방정부가 적정의료법을 통해 원격의료에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 대상 환자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자 또는 중증 만성질환 환자. 그리고 주 단위로 다른 주에서도 원격의료 가능하도록 의료면허협정을 수립.
- 2016년에는 원격의료동등법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민감보험사도 동등한 보험수가를 적용하기 시작. 또한 원격医료를 다른 주에 서비스하기 원하는 의사에게 특수목적면허를 통해 타주에서도 의료 행위가 가능한 면허를 부여.
- 21세기 치료법에서는 그동안 병원에 한정되서 적용됐던 원격医료를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다양한 장소로 확대 시킴.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설문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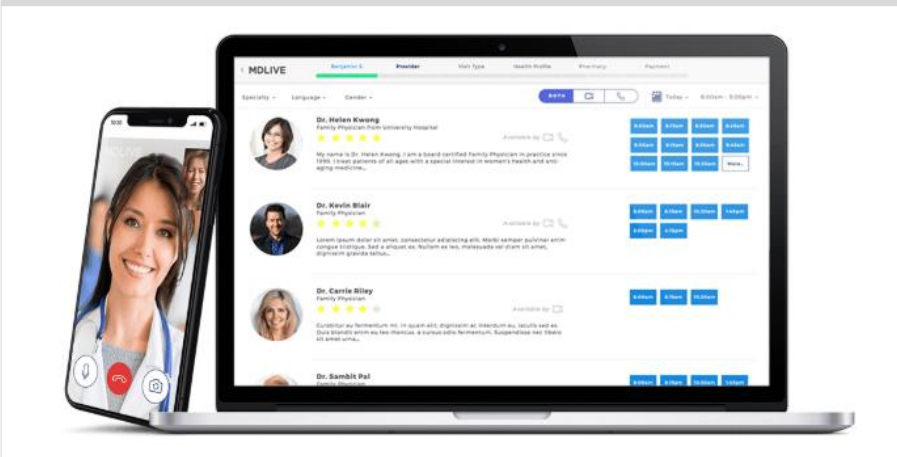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원격의료 국가별 현황

日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2015년부터 전면 허용

- 일본은 1997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한정해 9개의 질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
- 2003년에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
- 2011년에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지역을 전국단위로 확대.
- 2015년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
- 2018년에 원격조제를 제한된 지역에서 허용했으며 원격진료와 원격조제에 의료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하며 의료서비스 편의성 증대와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마련. 현재는 조정된 규제와 IT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원격의료)시장이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일본에서 서비스중인 Vsee Telehealth in Japan



자료: Vsee Telehealth in Japan, IBK투자증권

일본 Telehealth 서비스 대표기업 M3



자료: M3 Japan, IBK투자증권

원격의료 국가별 현황

中 2014년부터 원격의료를 폭 넓게 인정 -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급성장

- 중국 원격의료 시장은 매년 40% 이상 급성장. 중국 원격의료 시장은 2015년 45억위안 규모에서 2018년 200억위안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성장속도가 빨라짐. 올해 중국 춘절 기간 모바일 원격진료 이용자가 하루 최대 600만명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됨.
- 중국 정부는 2018년 의료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법안을 발표.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기반의 온라인 병원 설립이 가능하게되며 2019년에는 원격 의료에 대한 보험지급에 관한 지도의견을 낸 바 있음.
- 중국 원격의료 관련 기업의 성장도 두드러짐. 대표기업인 평안헬스케어텍(핑안건강인터넷유한회사, Ping An Healthcare & Technology)은 中 핑안그룹의 계열사로 2014년에 설립. 2015년 원격의료 및 모바일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핑안굿닥터를 출시하며 모바일 의료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 성장. 핑안굿닥터는 출시 100일만에 100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초기 반응도 좋았던 것으로 파악됨. 핑안건강인터넷유한 회사는 4년만인 2018년 5월에 홍콩주식시장에 상장. 2019년 6월에는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2019년 중국 최고 혁신 기업'에 선정된 바 있음.

중국의 원격의료 대표 플랫폼 - 핑안굿닥터



자료: 핑안굿닥터, IBK투자증권

핑안굿닥터 - 모바일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자료: 핑안굿닥터, IBK투자증권

원격의료 국가별 현황

中 원격의료 대표 플랫폼 기업 - 핑안헬스케어택의 기업가치 18조원

- 핑안헬스케어택(1833.HK)의 최근일 주가는 HKD(홍콩달러) 102달러로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HKD 1,097억(약 18조원) 달러.
- 2019년 기준 실적은 매출액 50억 위안, 영업손실 10억위안, 순손실 7억위안으로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손익은 맞추고 있지 못함. 핑안헬스케어택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는 2016년 6억위안, 2017년 18억위안, 2018년 33억위안, 2019년 50억위안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핑안헬스케어택은 PinaAn Good Doctor 24/7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론칭. PingAn Good Doctor 의료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불과 한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11억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보여줬던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올해 4월에 PingAn Good Doctor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 Consultation System에 대해 WONCA(The World Organization of Family Doctors, 세계가정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획득.

홍콩증시에 상장된 핑안헬스케어택의 최근 1년간 주가 추이



자료: 핑안헬스케어택, IBK투자증권

핑안굿닥터 CEO 왕타오



자료: 핑안헬스케어택,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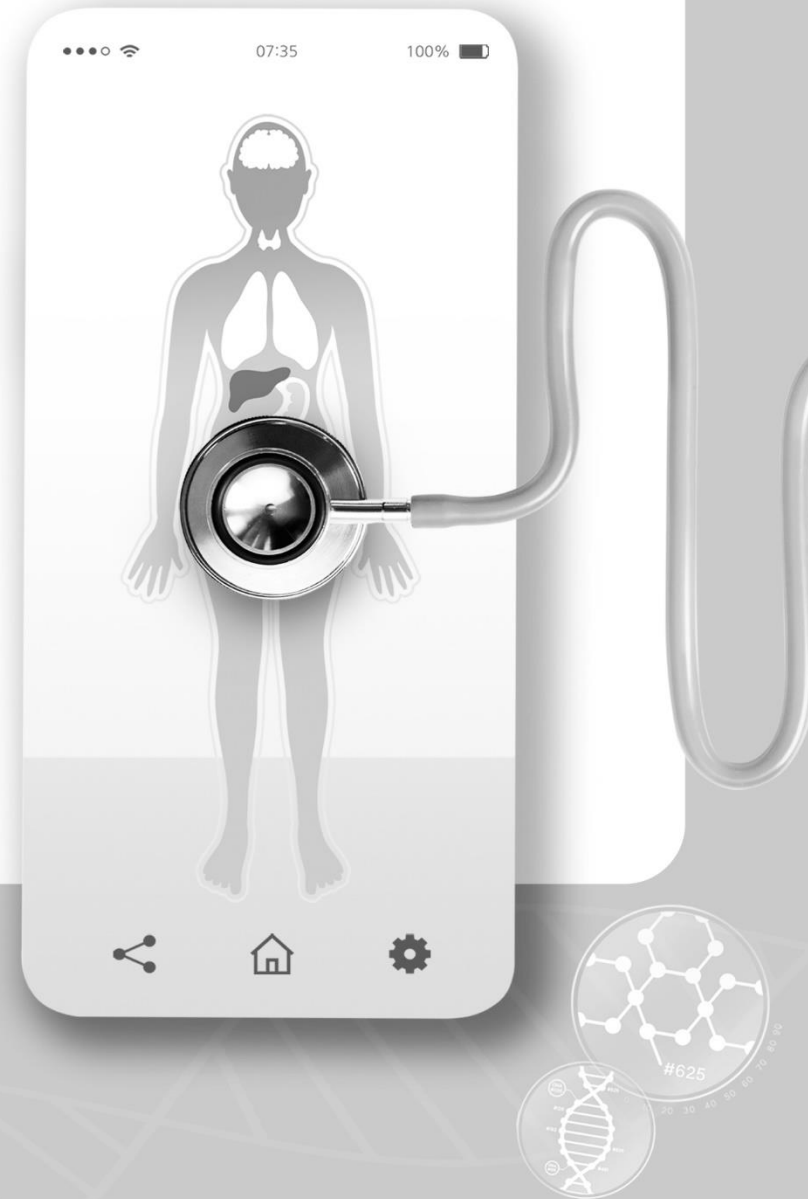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사례

Healthcare

문경준

02) 6915-5776
juninearth@ib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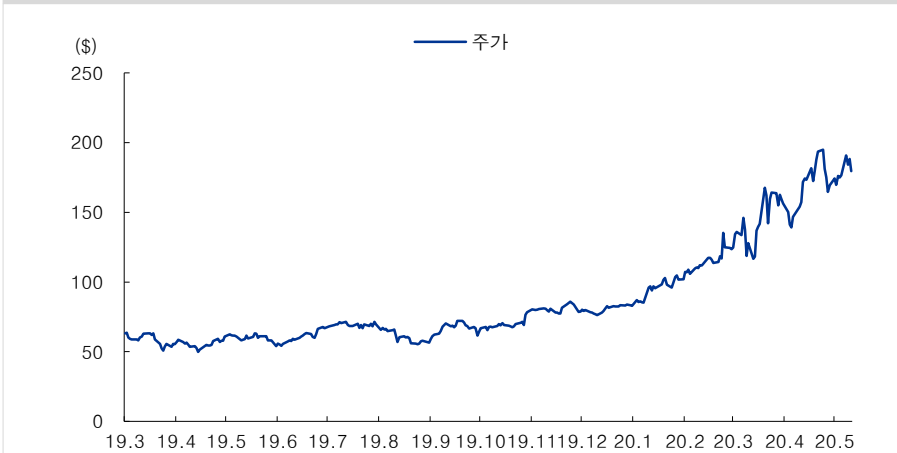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사례

NYSE에 상장된 대표적인 원격의료 업체 - Teladoc Health(TDOC)

- 미국의 대표적인 원격의료 서비스업체 Teladoc Health의 기업가치 약 130억달러. 코로나19 감염증 확대 이전 \$100 내외였던 동사의 주가는 최근 \$184(시가총액 137억달러)까지 상승.
- Teladoc의 주요서비스는 원격진료, 인공지능을 통한 건강상태 분석 서비스 등. Teladoc Health의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동사의 매출액은 2016년 1억2,315만달러에서 2019년 5억5,330만달러로 최근 3년 동안 349.2% 성장.
- Teladoc은 美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음. Teladoc은 2002년에 설립되어 텍사스 댈러스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 2008년에 100만명 이상의 유료회원을 확보. 2015년 7월 공모가 \$15에 원격의료 업체로는 최초로 NYSE에 상장. 이후 동사의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전세계로 확대하였으며 글로벌 130개국에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글로벌로 확대(現 해외 매출비중 20% 내외). 현재 임직원수는 2,400여명.

원격의료 업체 Teladoc Health의 주가 추이



자료: Teladoc Health, IBK투자증권

365일, 24시간 접속가능한 Teladoc 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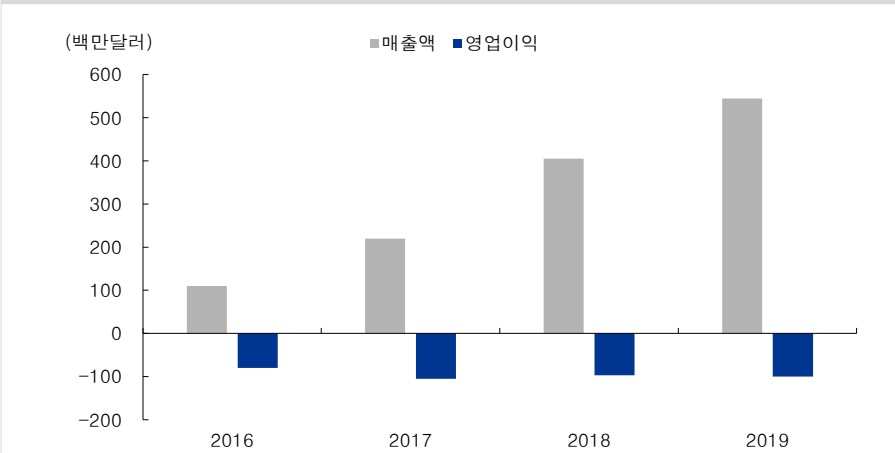
자료: Teladoc Health,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사례

NYSE에 상장된 대표적인 원격의료 업체 - Teladoc Health(TDOC)

- Teladoc Health의 서비스 대상 고객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해서 동사의 매출액도 성장하고 있음. 손익은 2019년 기준으로 영업손실 7,382만달러, 순손실은 9,886만달러를 기록. 동사의 최근일 기준 기업가치는 137억달러 수준으로 시장에서 동사가 속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 대한 성장주 투자관점을 엿 볼 수 있음.
- 현재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이 진행중이며 일정 규모의 외형확대 및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수익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Teladoc의 성장전략은 전형적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기업 성장 전략과 유사한 형태. 기업 성장 주기의 초기 단계에 공격적인 자본투자를 진행하여 특정 분야에서 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구축한 이후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우버 같은 잘 알려진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유사한 기업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음.
- Peer: MDLive(비상장), American Well(비상장), UnitedHealth Group(NYE: UNH).

원격의료 업체 Teladoc Health의 실적 추이



자료: Teladoc Health, IBK투자증권

노트북 PC를 활용한 Teladoc 원격진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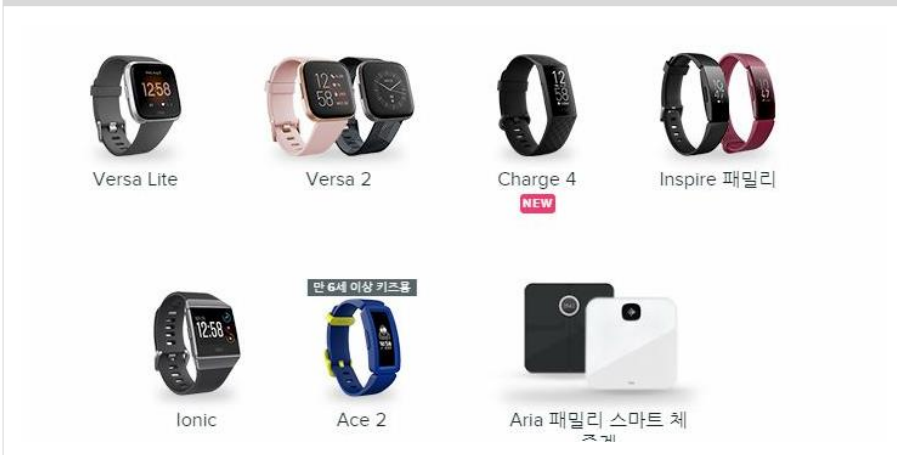
자료: Teladoc Health,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사례

개인용 피트니스 서비스 플랫폼 - 핏비트(FitBit)

- Fitbit 어플리케이션은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보면 1)걸음수, 거리, 하루 소모 칼로리 등 일일 건강관리 목표 체크, 2)수면목표 설정 및 취침/기상 관리, 3)지도 트래킹 및 운동 통계 정보 제공, 4)SNS를 활용한 운동 활동 공유, 5)동기부여 및 커뮤니티 활동, 목표달성 배지 획득, 친구와 경쟁(Fitbit Challenge), 6)신체 데이터 관리(몸무게, 영양, 수분 측정 등) 등이 있음.
- Fitbit의 제품군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웨어러블 기기부터 스마트체중계까지 신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음. 제품의 가격대는 US\$ 기준으로 스마트워치(\$159~249), Trackers(\$69~169), 체중계/SmartScales(\$49~129).
- IT기기 이외에도 Fitbit브랜드를 활용한 제품군(의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도 판매중.

Fitbit 제품군 -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스마트체중계 등



자료: Fitbit, IBK투자증권

Fitbit Healthcare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자료: Fitbit,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사례

개인용 피트니스 서비스 플랫폼 - 핏비트(FitBit)

- Fitbit은 재미교포 제임스박이 에릭 프리드먼과 2007년에 설립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회사. 헬스케어 서비스 영역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여가며 기업 외형이 빠르게 성장. 이후 2019년 11월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던 구글에서 21억달러에 Fitbit을 인수.(2018년 기준 매출액 약 15억달러)
- Fitbit은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2017년까지 글로벌 선두기업 위치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애플워치 출시 및 샤오미의 유사제품이 나오면서 시장 경쟁강도가 높아지고 있음. 웨어러블 헬스케어 관련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경쟁서비스로는 MyfitnessPal, S Health, Weight Watchers, Google fit, Nike-Running 등.
- 전방시장은 스마트폰과 연계된 스마트워치를 포함해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음. 시장 주도권 잡기 싸움이 본격화 되는 양상으로 자본력 있는 글로벌 기업의 M&A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

구글에서 Fitbit을 21억달러에 인수



자료: Google, Fitbit, IBK투자증권

Fitbit 설립자 재미교포출신 James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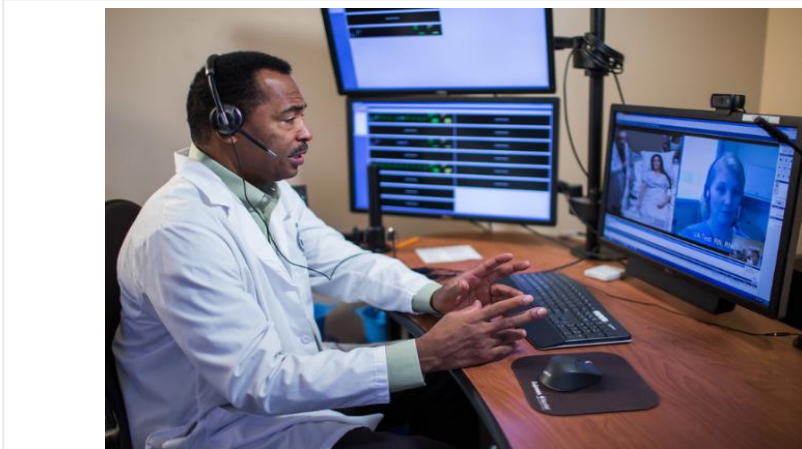
자료: Fitbit,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사례

美 정부차원의 원격의료 프로젝트 - by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미국퇴역군인국)

-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미국퇴역군인국)에서는 2017년 5년간 10억달러가 투입되는 퇴역군인들의 재택건강관리(원격의료) 서비스 구축 사업인 VA 프로젝트 진행. 美 정부기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
- VA 프로젝트의 주 사업자로 선정된 AMC Health의 파트너사로 선정된 인성정보가 해당 프로젝트에 클라이언트용 단말기를 공급중에 있음. 참고로 AMC Health는 2002년 Nesim Bilirici에 의해 설립된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로 원격의료 시스템(Telehealth Monitoring Solution) 구축 사업을 영위.
- 환자의 생체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 VA Mobile을 개발하여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
- 현재 VA healthcare team(퇴역군인 관리 의료인)은 다양한 원격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퇴역 군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시스템 고도화 투자를 진행중에 있음.

퇴역군인을 대상의 Telehealth 프로그램



자료: US, Department of VA, IBK투자증권

퇴역군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 VA Mobile



자료: US, Department of VA Health,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 비상장 기업들

Healthcare

문경준

02) 6915-5776
juninearth@ibks.com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 비상장 기업들

Line Healthcare 일본에서 헬스케어 사업 전개 - Line Healthcare JV설립

- 네이버는 원격의료이 허용되는 일본에서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 일본 의료서비스 플랫폼 업체 M3와 라인이 각각 49%, 51%의 지분을 출자해(자본금 1억7,000만엔)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2019년 1월에 설립.
- 파트너사인 M3는 Sony의 계열사로 Sony가 M3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
- M3는 2000년 9월에 설립된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로 日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2.6조엔. 3월 결산법인으로 최근 결산기준(2019.03.30) 매출액은 1,130억엔, 영업이익 306억엔, 순이익 195억엔. 최근 3년간 매출액 추이는 2017년 781억엔, 2018년 944억엔, 2019년 1,130억엔으로 증가 추이.
- 라인 헬스케어는 일본에서의 월간이용자수(MAU) 8,000만명 수준의 대표 메신저 라인을 통해 M3의 의료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전략.

Line Healthcare 모바일 앱 서비스



자료: Line Japan, IBK투자증권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구상도



자료: Line Japan,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 비상장 기업들

인바이츠헬스케어(Invites Healthcare) - SK텔레콤 계열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 SK텔레콤의 헬스케어 신사업부를 spin off해서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뉴레이크얼라이언스와 SCL헬스케어그룹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파악됨. 인바이츠헬스케어의 대표이사로 SK텔레콤에서 헬스케어 사업유닛장을 역임한 김준연 대표가 선임됨.
- 국내 시장은 규제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헬스케어 플랫폼 파트너사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중에 중국 현지에서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론칭한다는 계획.
- 향후 개인용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가 타겟. 국내 시장에서는 원격의료와 같은 규제 영역 보다는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운영 솔루션 개발/공급을 통해 기술 역량을 키워간다는 전략. 향후 SK텔레콤과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
- 최근 투자를 통해 인바이츠헬스케어의 기업가치를 1,000억원 수준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추정됨.

인바이츠헬스케어(Invites Healthcare) 기업CI



자료: 인바이츠헬스케어, IBK투자증권

인바이츠헬스케어 김준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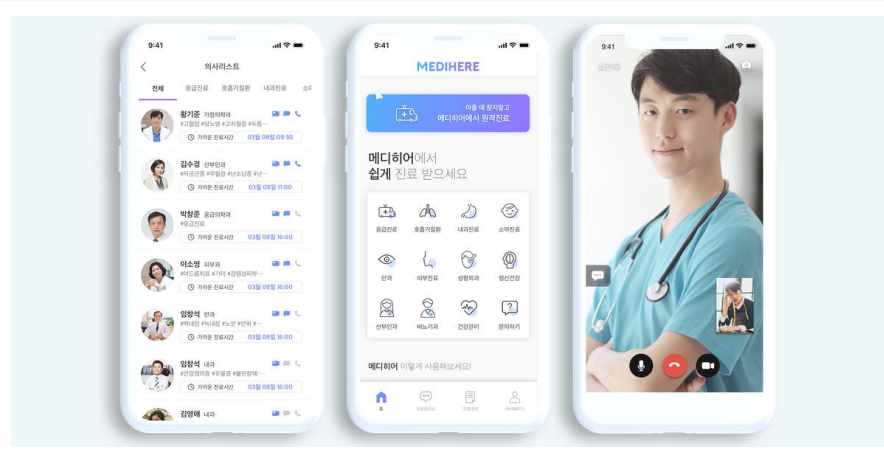
자료: 인바이츠헬스케어,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 비상장 기업들

메디히어 - 원격화상진료 플랫폼 & 질환별 의사추천 플랫폼 서비스

- 메디히어는 의료정보 O2O(Online to Offline)업체로 원격화상진료앱 메디히어와 종합병원 정보사이트 닥터히어 서비스를 제공. 의료서비스 영역은 의료정보 제공자와 수요자(환자)의 정보 불균형이 심한 영역으로 ICT기술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회사 서비스가 추구하는 목표.
- 메디히어(원격진료 플랫폼)는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며 향후 규제 완화를 고려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
- 닥터히어는 분야별 실력 있는 의사추천 플랫폼으로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정보를 수집해 특정 질환에 적합한 전문의 정보를 제공. 자신과 관련된 질환 내용을 전달하면 이에 적합한 의사의 경력/성별/지역/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환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
- 메디히어는 2019년 9월경 Pre-SeriesA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로 8억4천만원의 투자금을 유치.

메디히어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



자료: MEDIHERE, IBK투자증권

메디히어 김기환대표



자료: MEDIHERE,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헬스케어 산업 향후 전망

Healthcare

문경준

02) 6915-5776

juninearth@ib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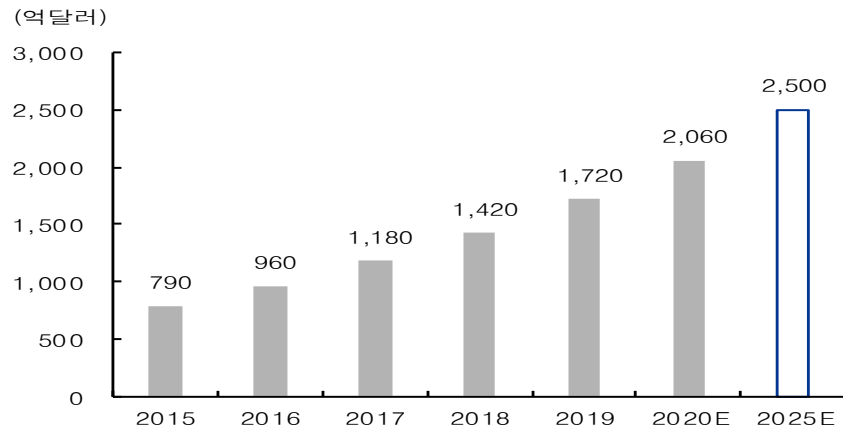


헬스케어 산업 향후 전망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 2025년 까지 2,500억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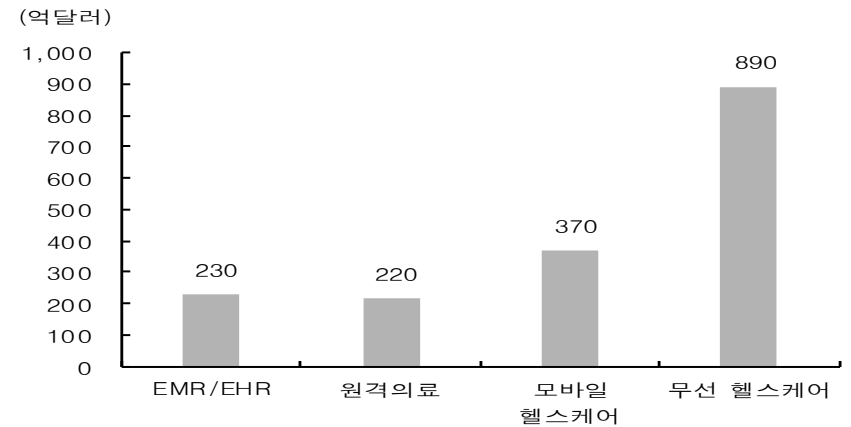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72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현재의 성장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 적어도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2025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500억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추세에 비례적으로 관련시장이 성장하였으며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40%를 상회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모바일 헬스케어가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모바일은 의료 소비의 중요한 매체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헬스케어 시장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의사라는 전문인력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이성이 존재.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시장 경제 논리에 의존해 발전하기 보다는 지역별/국가별 또는 해당 국가의 정치 성향에 따라 특징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해 왔음.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마주한 상황.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 추이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별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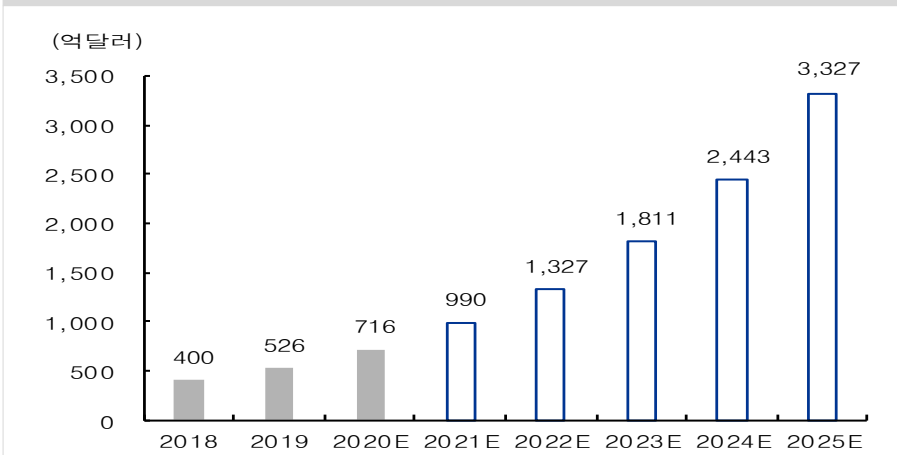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헬스케어 산업 향후 전망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성장률 50% 상회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세도 코로나사태 이후 가팔라 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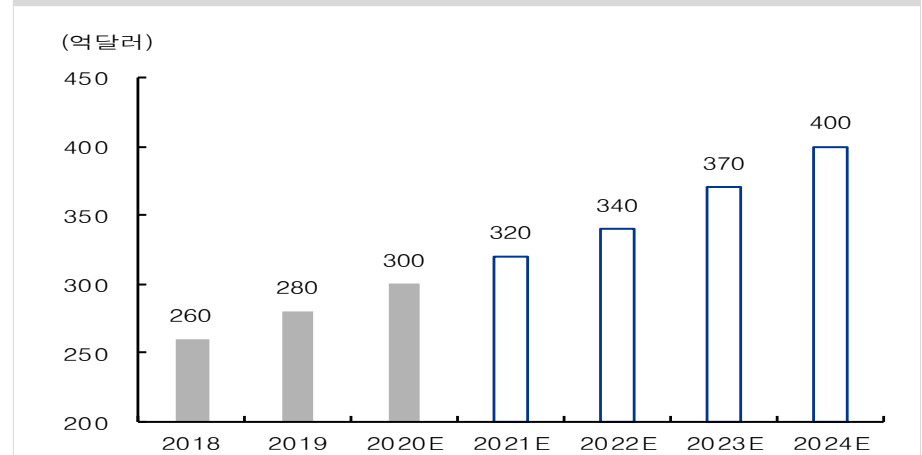
- 모바일 헬스케어는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40%를 상회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향후 5G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고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사물인터넷(IoT)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현재의 시장 성장세는 지속되거나 또는 더 빨라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Statista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5년에 3,3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의료 기관의 운영시스템인 EMR/EHR도 지금까지는 디지털 전산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에는 네트워크와 연동돼 부가가치를 높이는 서비스로 진화/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성장세도 가팔라 질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의료서비스 산업에도 언택트(비대면진료) 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건강 관련 개인 정보에 관한 규정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고 시장 수요 대비 성장에 다소 더뎠지만 이번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관련 투자 및 정책 지원이 잇따를 것.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글로벌 EMR/EHR 시장 규모는 증가 추이



자료: Statis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BK투자증권

헬스케어 산업 향후 전망

데이터 3법 개정안, 클라우드, 빅데이터 -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거대시장

- 의료기관의 데이터 이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차원에서도 진행. 2020년 1월에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먼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시작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직효율화, 고객서비스 개선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 후행적으로 의료기관에서도 데이터 이용 고도화를 통한 사업 효율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그동안 각각 기관별 물리적 네트워크 자원을 보유하는 형태에서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형태의 데이터 활용이 증가. 2016년 8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허용. 병원이 자체적으로 IT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관련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이에 따라 국내 병원 및 공공기관 그리고 유관 기관까지 관련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 국내 의료정보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10%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2019년 기준 1,849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데이터3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식별 불가능한 '가명정보'를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 허용. 개인 정보 관리/감독 권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정보통신망법	산재된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신용정보법	'가명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 허용. 통계 작성/연구 등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허용

자료: 미디어, 보도자료 IBK투자증권

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 데이터3법 토론회, 방송통신위원회, IBK투자증권

헬스케어 산업 향후 전망

근거중심 의학 - 선진 의료시장에서 보건의료의 중심이론으로 자리잡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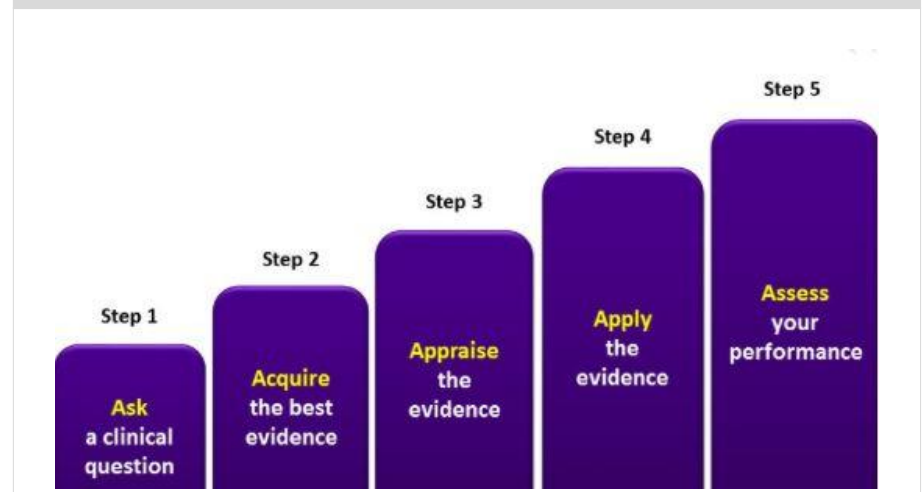
- 근거중심의학(EBM, Evidence based medicine)이 최근의 의학계에 중요한 컨셉으로 제시되고 있음.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대한 의사들 각각의 의견은 지식과 경험에 기반에 다양하게 나타남. 근거중심의학은 개인의 임상 경험에 의존한 주관적 의견 보다는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
- 동일한 환자군에게 의사마다 내리는 진단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진단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의사에 따라 처방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 일부 병원에서 약한 감기에 항생제를 습관적으로 처방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과잉 진단의 사례가 될 수 있음.
- 선진의료 시장에서는 근거중심의학이 보건의료의 중심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 의료계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안착 시키려는 노력이 진행중.
- 또한 의사가 특정 질병에 대한 모든 임상 과정과 결과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근거중심의 진료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 당노에 관한 연간 발표 논문만 수천건에 달하는데 의사 개인이 이 모든 임상 결과를 알기 어려움.

EBM - Quality of Evidence(근거의 강도)

Quality of evidence	Study design	Lower quality if*	Higher quality if†
High	Randomised trial	Study limitations - 1 serious - 2 very serious	Large effect + 1 large + 2 very large
Moderate		Inconsistency - 1 serious - 2 very serious	
Low	Observational study	Indirectness - 1 serious - 2 very serious	Dose response + 1 evidence of a gradient
Very low		Imprecision - 1 serious - 2 very serious Publication bias - 1 serious - 2 very serious	

자료: European Patients Academy on Therapeutic Innovation, IBK투자증권

근거중심 의학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Process



자료: Buoy Health,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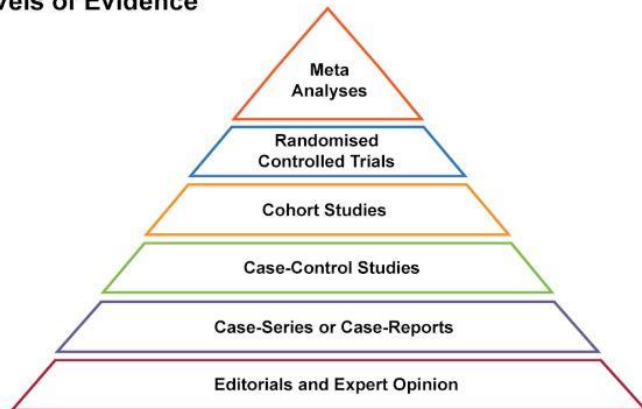
헬스케어 산업 향후 전망

근거중심의학의 확산은 -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시장 개화의 토대가 될 것

- 근거중심의학(EBM, Evidence based medicine)에서 다루는 근거(Evidence)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과학적 증거는 의사 개인의 소견 또는 개별 증례보고(Case Reports)이며 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는 관찰 환자군과 대조군간의 연구 또는 Cohort연구로 얻어진 근거.
- 다음 상위의 근거는 무작위로 진행된 대조군 시험(RCT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그리고 최종 단계는 무작위 대조군 시험들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 근거중심의학은 의사들이 임상 진료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일반화된 결과를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인공지능 AI 기반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핵심이 되는 컨셉이 근거중심의학으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빅데이터)를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일반화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음. AI가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 향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1차 간편 의료서비스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EBM에서 제시하는 Levels of Evidence

Levels of Evidence



자료: European Patients Academy on Therapeutic Innovation, IBK투자증권

근거중심의학 기반의 AI진료 서비스 개발업체 - Buoy Health



자료: Buoy Health, IBK투자증권

헬스케어 산업 향후 전망

인공지능 의료 진단 - Buoy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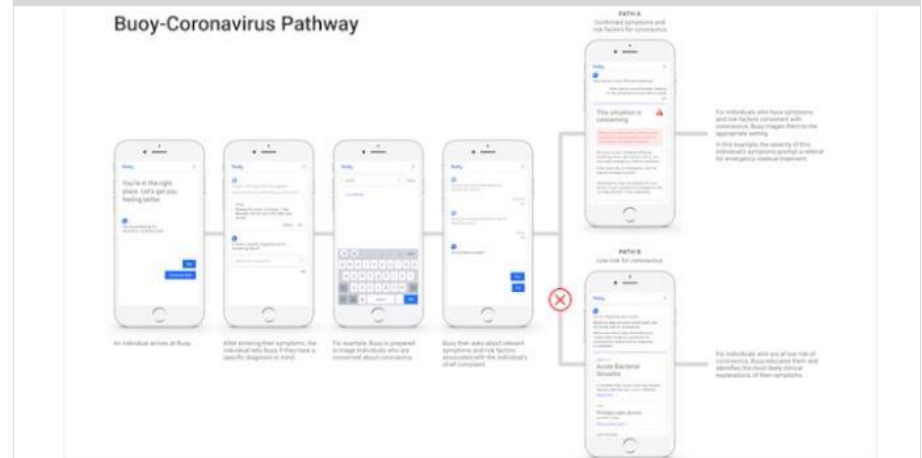
- Buoy Health는 AI(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서비스 전문업체. 동사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의료챗봇 서비스는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답변하면 적합한 진단 및 의료조언을 제공.
- Buoy Health가 AI 의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근거중심의학 컨셉으로 재구성한 의료 빅데이터. 의사들이 특정 증상에 일반적으로 내리는 진료 데이터와 수만개의 임상 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성이 높은 증상을 분류하여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진단을 내리는 형태. 환자 증상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리며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병원 방문을 제안. Buoy에서 제공하는 진단의 정확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데이터 기반의 진료를 수행해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의료 실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
- Buoy Health는 2017년 F-prime Capital Partners로부터 670만달러 투자유치를 하였으며 이후 2019년에는 1,500만달러의 투자유치를 하며 향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음.

Buoy Health의 설립자/CEO - Andrew Le(가장 우측)



자료: Buoy Health, IBK투자증권

Buoy에서 제공했던 - Corona 감염증 AI 자가진단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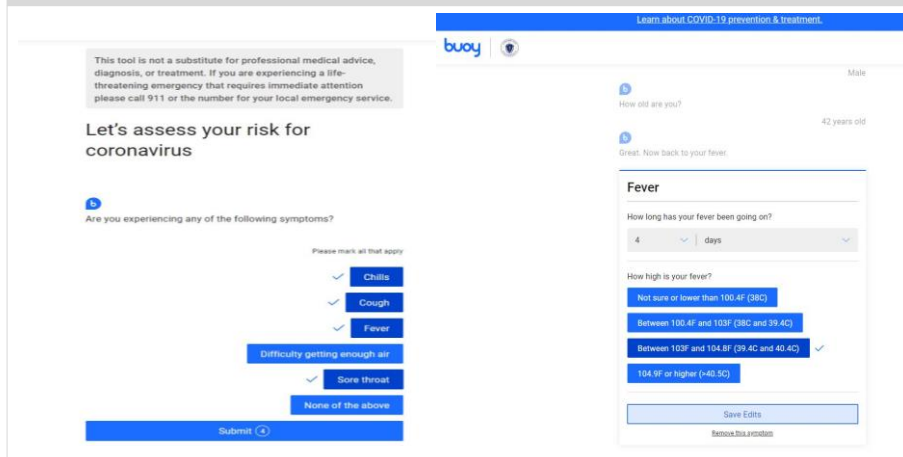
자료: Buoy Health, IBK투자증권

헬스케어 산업 향후 전망

인공지능 의료 진단 - Buoy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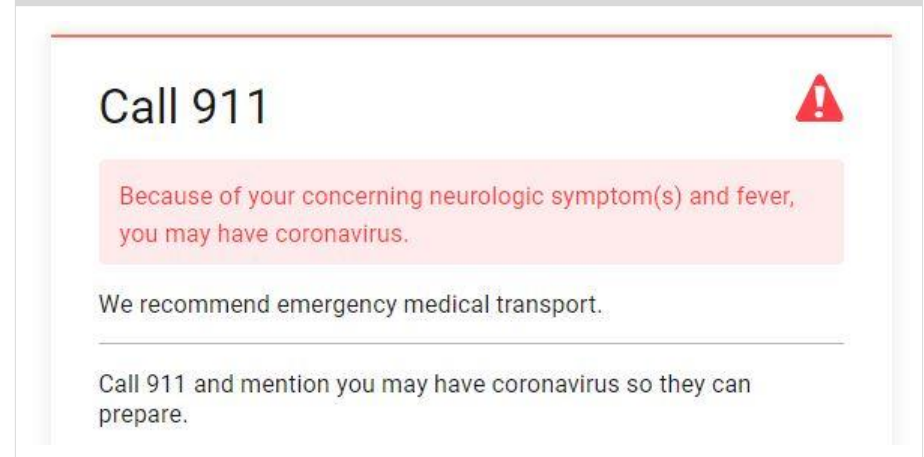
- Buoy Health의 AI(인공지능) 챗봇 기능을 통해 필자가 직접 코로나 감염증 진단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았음. 진단은 챗봇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진행되는데 첫 질문부터 진단이 나오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이내로 체감하기에 실제 감기 증상으로 의사와 진료하는 시간과 거의 유사하게 느껴짐.
- 질의 응답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음. 1)성별, 나이 등의 기본적인 신체 정보, 2)기침, 발열, 오열 등의 신체 증상, 3)증상의 정도 및 느끼는 통증, 4)체온 측정이 가능하다면 현재의 체온 및 그 증상이 지속된 기간, 기침에 혈이 묻어 나오는지 여부 등.
- 가상의 코로나 증상 답변에 대해 Buoy 인공지능 진단이 내린 조언은 ‘당신의 신경학적 증상과 열 반응을 고려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료기관에 연락해 적절한 처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인공지능 진단 영역은 병원에 가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진단을 받고 싶은 환자, 만성질환 보유자로 주기적인 병원 방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환자 등에 이용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

Buoy Health – Corona 진단 챗봇 기능



자료: Buoy Health, IBK투자증권

코로나 질의응답 진행후 – Buoy 챗봇의 진단/제안



자료: Buoy Health, IBK투자증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관련 기업분석

- 유비케어 (032620)
- 비트컴퓨터 (032850)
- 인성정보 (033230)
- 케어랩스 (263700)

Healthcare

문경준

02) 6915-5776
juninearth@ibks.com



유비케어 (032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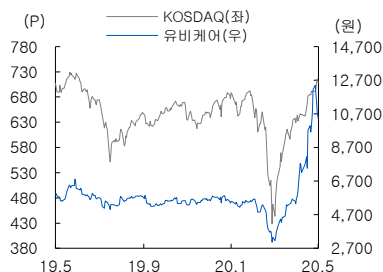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가 (5/22)	10,450원
KOSDAQ (5/22)	708.58pt
시가총액	5,455억원
발행주식수	52,197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12,400원
최저가	3,075원
60일 평균거래대금	628억원
외국인 지분율	1.6%
배당수익률 (2019.12월)	0.8%

주주구성

녹십자헬스케어	52.65%
---------	--------

주가상승률	1M	6M	12M
상대기준	66%	77%	76%
절대기준	85%	98%	77%



B2C와 B2B를 아우르는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

- 유비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로 주요사업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과 EMR관련 부가사업, 헬스케어 유통사업, 제약/데이터 분석솔루션, 건강관리솔루션이 있다. 사업별 매출비중은 EMR솔루션 46.7%(EMR 22.6% & 부가사업 24.3%), 유통솔루션 41.8%, 제약/데이터 분석솔루션 8.3%, 건강관리솔루션 3.2%로 구성된다. 동사는 EMR시장 국내 1위 기업으로 전국 병원 EMR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월과금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적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EMR솔루션 사업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EMR솔루션 사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는 2014년 169억원, 2016년 186억원, 2018년 226억원, 2019년 23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EMR부가사업 또한 EMR솔루션 사업의 매출 증가세와 비례적으로 상승하였다. 병의원 운영효율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EMR솔루션 도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M&A를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2016년 11월에 인수한 비브로스는 모바일 헬스케어 O2O플랫폼 ‘똑닥’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향후 동사의 B2B솔루션 비즈니스와 B2C 플랫폼 비즈니스가 연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사업적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의료 서비스 산업은 법적 규제로 인해 서비스 연결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플랫폼 역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억원, %, 배)	2016	2017	2018	2019	2020E
매출액	682	821	999	1,109	1,285
영업이익	63	75	96	124	159
세전이익	73	46	91	109	127
지배주주순이익	51	36	58	68	93
EPS(원)	126	88	119	130	178
증가율(%)	-18.3	-29.8	34.8	9.3	26.4
영업이익률(%)	9.2	9.1	9.6	11.2	12.4
순이익률(%)	7.5	4.3	6.1	6.6	7.2
ROE(%)	11.0	7.6	7.8	6.7	8.4
PER	27.9	41.3	36.9	44.1	58.7
PBR	3.0	3.2	2.3	2.9	4.9
EV/EBITDA	14.7	13.5	15.1	19.5	-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유비케어 (032620)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594	682	821	999	1,109
증가율(%)	6.6	14.8	20.3	21.7	11.0
매출원가	257	307	396	494	550
매출총이익	337	375	425	505	559
매출총이익률 (%)	56.7	55.0	51.8	50.6	50.4
판매비	292	312	350	409	435
판매비율(%)	49.2	45.7	42.6	40.9	39.2
영업이익	45	63	75	96	124
증가율(%)	6.3	39.8	18.4	27.3	29.2
영업이익률(%)	7.6	9.2	9.1	9.6	11.2
순금융손익	7	6	4	8	2
이자손익	7	6	4	8	2
기타	0	0	0	0	0
기타영업외손익	-3	4	-9	20	14
종속/관계기업손익	0	0	-25	-33	-31
세전이익	49	73	46	91	109
법인세	0	21	10	16	34
법인세율	0.0	28.8	21.7	17.6	31.2
계속사업이익	49	51	35	74	74
중단사업손익	13	-1	0	-14	-1
당기순이익	62	51	35	61	73
증가율(%)	-306.7	-18.3	-30.1	71.9	20.5
당기순이익률 (%)	10.4	7.5	4.3	6.1	6.6
지배주주당기순이익	62	51	36	58	68
기타포괄이익	-4	0	0	5	-11
총포괄이익	58	50	36	66	63
EBITDA	56	73	84	110	144
증가율(%)	2.1	30.5	14.9	31.0	31.4
EBITDA마진율(%)	9.4	10.7	10.2	11.0	13.0

재무상태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526	505	507	880	980
현금및현금성자산	89	135	226	205	156
유가증권	296	205	111	458	56
매출채권	99	98	127	176	203
재고자산	29	26	27	11	36
비유동자산	117	144	184	420	388
유형자산	58	59	61	59	63
무형자산	26	18	33	229	229
투자자산	20	57	71	126	94
자산총계	642	648	691	1,299	1,367
유동부채	169	161	201	239	29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0	41	45	37	44
단기차입금	0	0	0	0	0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1
비유동부채	20	22	24	16	17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부채총계	189	183	225	255	309
지배주주지분	453	466	465	1,017	1,026
자본금	201	201	201	261	261
자본잉여금	118	118	118	542	543
자본조정등	0	-26	-50	-36	-66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	-1	0	-3	-5
이익잉여금	132	173	196	252	294
비지배주주지분	0	0	0	28	33
자본총계	453	466	466	1,044	1,059
비이자부채	189	183	225	255	307
총차입금	0	0	0	0	2
순차입금	-385	-340	-337	-664	-210

현금흐름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업활동 현금흐름	78	31	93	84	118
당기순이익	62	51	35	61	73
비현금성 비용 및 수익	15	35	61	57	8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6	5	5	6	10
무형자산상각비	5	4	4	8	11
운전자본변동	-7	-49	6	-10	-27
매출채권등의 감소	-70	1	-29	-40	-31
재고자산의 감소	-10	3	-1	16	-27
매입채무등의 증가	54	-29	4	-12	8
기타 영업현금흐름	8	-6	-9	-24	-15
투자활동 현금흐름	-53	52	31	-567	-117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	5	6	7	10
유형자산의 감소	0	0	2	0	0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9	2	-2	-3	-12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9	-41	-39	-67	-229
기타	-40	86	64	-504	114
재무활동 현금흐름	0	-38	-34	462	-51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2	0	0
자본의 증가	0	0	0	480	0
기타	0	-38	-32	-18	-51
기타 및 조정	0	0	1	1	0
현금의 증가	25	45	91	-20	-50
기초현금	64	89	135	226	205
기말현금	89	135	226	205	156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

	2015	2016	2017	2018	2019
주당지표(원)					
EPS	154	126	88	119	130
BPS	1,125	1,156	1,155	1,948	1,965
DPS	30	30	30	35	40
밸류에이션(배)					
PER	23.5	27.9	41.3	36.9	44.1
PBR	3.2	3.0	3.2	2.3	2.9
EV/EBITDA	19.2	14.7	13.5	15.1	19.5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은 지배주주순이익 및 지배주주지분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성장성지표(%)					
매출증가율	6.6	14.8	20.3	21.7	11.0
EPS증가율	-339.3	-18.3	-29.8	34.8	9.3
수익성지표(%)					
배당수익률	0.8	0.9	0.8	0.8	0.7
ROE	14.6	11.0	7.6	7.8	6.7
ROA	10.6	7.9	5.3	6.1	5.5
ROIC	104.8	82.1	53.1	39.3	29.4

안정성 및 활동성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41.8	39.2	48.3	24.4	29.2
순차입금 비율(%)	-85.0	-73.0	-72.3	-63.6	-19.8
이자보상배율(배)	0.0	0.0	0.0	0.0	0.0
활동성지표(배)					
매출채권회전율	7.2	6.9	7.3	6.6	5.9
재고자산회전율	24.2	24.6	30.8	52.9	47.1
총자산회전율	1.0	1.1	1.2	1.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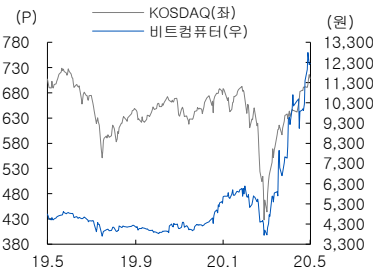
비트컴퓨터 (032850)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가 (5/22)	12,250원
KOSDAQ (5/22)	708.58pt
시가총액	2,036억원
발행주식수	16,623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12,800원
최저가	3,700원
60일 평균거래대금	548억원
외국인 지분율	0.5%
배당수익률 (2019.12월)	0.0%

주주구성
조현정 외 3 인 25.93%

주가상승률	1M	6M	12M
상대기준	16%	169%	155%
절대기준	29%	200%	155%



클라우드 의료정보 시스템 공급 본격화

- 최근에는 의료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해서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비트컴퓨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론칭해 중소형 병의원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중대형 병원을 위한 패키지화된 클라우드 시스템도 개발하여 구축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자체 서버/네트워크 형태로 구축하는 것 보다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최근 트렌드이다. 비트컴퓨터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클레머'를 개발 출시하였다. SI수주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관심 받고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동사의 클라우드 사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2020년 예상실적은 매출액 403억원(+7.7% yoy), 영업이익 53억원(-13.1% yoy)이다. 의료정보시스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중심의 외형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진행중인 프로젝트 일부가 2Q 또는 하반기로 지연된 영향으로 실적은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1회성으로 발생한 총당금 및 코로나19 변수를 제거한 실적추이는 예년 성장 추이를 유지하며 우상향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원격 의료 시장의 개화 시점에 계단식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 억원, %, 배)	2016	2017	2018	2019	2020E
매출액	348	319	328	374	403
영업이익	35	43	-22	61	53
세전이익	53	48	-6	86	62
지배주주순이익	42	36	-2	71	52
EPS(원)	250	216	-14	427	313
증가율(%)	-10.2	-13.9	적전	흑전	-26.7
영업이익률(%)	10.1	13.5	-6.7	16.3	13.2
순이익률(%)	12.1	11.3	-0.6	19.0	12.9
ROE(%)	11.0	8.7	-0.6	15.6	10.6
PER	21.9	25.8	-	10.2	39.2
PBR	2.3	2.2	2.0	1.5	4.2
EV/EBITDA	20.7	16.7	-50.9	9.1	-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비트컴퓨터 (032850)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373	348	319	328	374
증가율(%)	7.6	-6.7	-8.3	2.7	14.1
매출원가	273	265	232	292	263
매출총이익	100	83	88	35	111
매출총이익률 (%)	26.8	23.9	27.6	10.7	29.7
판매비	50	48	44	57	50
판매비율(%)	13.4	13.8	13.8	17.4	13.4
영업이익	50	35	43	-22	61
증가율(%)	95.8	-30.1	24.4	적전	흑전
영업이익률(%)	13.4	10.1	13.5	-6.7	16.3
순금융손익	0	1	1	2	1
이자손익	-1	0	0	1	0
기타	1	1	1	1	1
기타영업외손익	2	10	-5	6	15
종속/관계기업손익	6	7	8	7	9
세전이익	57	53	48	-6	86
법인세	11	11	12	-3	15
법인세율	19.3	20.8	25.0	50.0	17.4
계속사업이익	46	42	36	-2	71
중단사업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6	42	36	-2	71
증가율(%)	252.3	-10.2	-13.9	적전	흑전
당기순이익률 (%)	12.3	12.1	11.3	-0.6	19.0
지배주주당기순이익	46	42	36	-2	71
기타포괄이익	0	-2	1	-1	-1
총포괄이익	47	40	37	-3	70
EBITDA	55	40	49	-15	77
증가율(%)	79.9	-28.0	23.2	적전	흑전
EBITDA마진율(%)	14.7	11.5	15.4	-4.6	20.6

재무상태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185	182	190	196	228
현금및현금성자산	56	52	63	17	21
유가증권	76	78	69	52	48
매출채권	37	35	47	59	46
재고자산	1	0	0	7	5
비유동자산	315	341	346	365	397
유형자산	177	154	155	153	178
무형자산	11	11	18	18	18
투자자산	28	55	56	51	80
자산총계	500	522	536	561	625
유동부채	76	81	90	116	8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4	22	16	33	28
단기차입금	7	0	0	0	0
유동성장기부채	18	18	18	9	10
비유동부채	65	42	23	24	47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44	27	9	0	15
부채총계	141	123	113	140	134
지배주주지분	359	399	424	421	490
자본금	83	83	83	83	83
자본잉여금	129	129	129	129	129
자본조정등	-13	-13	-13	-13	-1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1	-1	0	0
이익잉여금	160	201	225	221	291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359	399	424	421	490
비이자부채	72	79	86	131	90
총차입금	69	44	27	9	44
순차입금	-63	-86	-105	-60	-25

현금흐름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업활동 현금흐름	50	47	45	-7	21
당기순이익	46	42	36	-2	71
비현금성 비용 및 수익	24	6	11	20	-1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5	5	5	6	15
무형자산상각비	0	0	0	1	1
운전자본변동	-7	8	-2	-18	-43
매출채권등의 감소	36	6	-8	-20	9
재고자산의 감소	-1	0	0	-7	2
매입채무등의 증가	-28	-2	-6	17	-4
기타 영업현금흐름	-13	-9	0	-7	4
투자활동 현금흐름	-30	-26	4	-21	-24
유형자산의 증가(CAPEX)	7	8	5	1	3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2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	-18	2	-36	-22
기타	-35	-16	-3	14	-3
재무활동 현금흐름	-21	-25	-38	-18	8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2	0	30
자본의 증가	0	0	0	0	0
기타	-21	-25	-36	-18	-22
기타 및 조정	0	0	0	0	-1
현금의 증가	-1	-4	11	-46	4
기초현금	57	56	52	63	17
기말현금	56	52	63	17	21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

	2015	2016	2017	2018	2019
주당지표(원)					
EPS	279	250	216	-14	427
BPS	2,161	2,401	2,550	2,531	2,950
DPS	0	73	0	0	61
밸류에이션(배)					
PER	27.9	21.9	25.8	-	10.2
PBR	3.6	2.3	2.2	2.0	1.5
EV/EBITDA	22.2	20.7	16.7	-50.9	9.1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은 지배주주순이익 및 지배주주지분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성장성지표(%)					
매출증가율	7.6	-6.7	-8.3	2.7	14.1
EPS증가율	252.3	-10.2	-13.9	적전	흑전
수익성지표(%)					
배당수익률	0.0	1.3	0.0	0.0	1.4
ROE	13.8	11.0	8.7	-0.6	15.6
ROA	9.1	8.1	6.8	-0.4	12.0
ROIC	26.4	24.7	23.3	-1.5	39.5

안정성 및 활동성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39.3	30.9	26.6	33.2	27.4
순차입금 비율(%)	-17.5	-21.6	-24.8	-14.3	-5.1
이자보상배율(배)	0.0	0.0	0.0	0.0	0.0
활동성지표(배)					
매출채권회전율	6.1	9.6	7.8	6.2	7.1
재고자산회전율	1,192.5	1,089.2	1,406.8	86.1	59.1
총자산회전율	0.7	0.7	0.6	0.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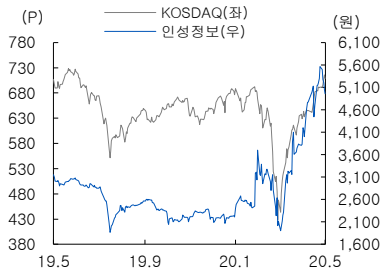
인성정보 (033230)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가 (5/22)	4,955원
KOSDAQ (5/22)	708.58pt
시가총액	991억원
발행주식수	20,375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5,560원
최저가	1,870원
60일 평균거래대금	113억원
외국인 지분율	0.2%
배당수익률 (2019.12월)	0.0%

주주구성	
윤재승 외 5인	25.58%
원종윤 외 2인	7.41%

주가상승률	1M	6M	12M
상대기준	6%	100%	57%
절대기준	18%	123%	57%



해외 원격의료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준비된 기업

- 사업부별 매출비중(2019년)은 IT인프라사업 38.7%, 네트워크 장비도매사업 38.6%, 소프트웨어 도매사업 22.7%, 헬스케어사업 0.2%로 구성된다. 2019년 실적은 매출액 2,467억원(-4.4% yoy), 영업이익 35억원(+11.7% yoy), 순이익 -4억원(적자지속 yoy)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실적을 시현하였다. 영업외 비용으로 인해 순손익은 소폭의 적자를 이어갔다.
- 헬스케어항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축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원격의료 관련 규제로 외형 성장이 더딘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원격의료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점이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계단식 성장이 예상되지만 그 전까지는 예년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하며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다. 동사가 진행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美 AMC Health와 진행중인 VA(Veterans Affairs, 참전군인케어) 프로젝트이다. 2017년에 퇴역 군인들의 재택건강관리(원격의료)를 목적으로 5년간 10억달러가 투입되는 VA 프로젝트에 AMC Health가 선정되었으며 인성정보가 단말기/솔루션 공급 파트너사로 참여하였다. 향후 관련 규제완화로 국내 시장이 개화되면 원격의료 사업파트너를 확보하고 기술 역량을 갖춘 기업들 중심으로 계단식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억원, %, 배)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2,565	2,527	2,558	2,580	2,467
영업이익	-31	50	31	31	35
세전이익	-87	20	-31	1	4
지배주주순이익	-105	11	-37	-4	-4
EPS(원)	-617	66	-209	-23	-21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영업이익률(%)	-1.2	2.0	1.2	1.2	1.4
순이익률(%)	-4.2	0.5	-1.4	-0.2	-0.2
ROE(%)	-26.9	3.3	-9.7	-1.1	-1.0
PER	-	61.2	-	-	-
PBR	2.5	2.0	2.2	1.4	1.1
EV/EBITDA	-96.3	20.7	26.1	20.4	15.1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인성정보 (033230)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2,565	2,527	2,558	2,580	2,467
증가율(%)	-0.3	-1.5	1.2	0.9	-4.4
매출원가	2,357	2,239	2,263	2,264	2,162
매출총이익	208	288	296	317	305
매출총이익률 (%)	8.1	11.4	11.6	12.3	12.4
판매비	239	238	264	286	270
판매비율(%)	9.3	9.4	10.3	11.1	10.9
영업이익	-31	50	31	31	35
증가율(%)	적지	흑전	-37.1	-0.7	11.7
영업이익률(%)	-1.2	2.0	1.2	1.2	1.4
순금융손익	-21	0	-97	-7	-21
이자손익	-22	-22	-25	-25	-23
기타	1	22	-72	18	2
기타영업외손익	-35	-30	34	-22	-10
종속/관계기업손익	0	0	0	0	0
세전이익	-87	20	-31	1	4
법인세	20	8	6	5	7
법인세율	-23.0	40.0	-19.4	500.0	175.0
계속사업이익	-107	12	-37	-4	-4
중단사업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07	12	-37	-4	-4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적지	적지
당기순이익률 (%)	-4.2	0.5	-1.4	-0.2	-0.2
지배주주당기순이익	-105	11	-37	-4	-4
기타포괄이익	0	0	11	-5	-13
총포괄이익	-107	11	-27	-9	-16
EBITDA	-14	50	46	43	51
증가율(%)	-129.4	-461.8	-7.1	-7.6	18.9
EBITDA마진율(%)	-0.5	2.0	1.8	1.7	2.1

재무상태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1,440	1,371	1,245	1,473	1,578
현금및현금성자산	134	185	121	130	169
유가증권	54	76	80	67	65
매출채권	877	806	746	749	842
재고자산	346	274	263	339	321
비유동자산	200	196	203	242	251
유형자산	125	129	129	119	135
무형자산	26	22	20	18	16
투자자산	26	29	37	39	36
자산총계	1,640	1,567	1,447	1,715	1,829
유동부채	1,062	1,140	919	1,108	1,19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25	501	420	434	473
단기차입금	464	415	340	351	375
유동성장기부채	8	154	86	26	51
비유동부채	234	70	90	196	239
사채	165	0	0	49	66
장기차입금	27	25	40	54	60
부채총계	1,296	1,211	1,010	1,303	1,434
지배주주지분	335	346	427	400	383
자본금	85	85	96	96	96
자본잉여금	594	594	692	692	692
자본조정등	-48	-48	-48	-48	-48
기타포괄이익누계액	8	6	17	10	5
이익잉여금	-305	-292	-330	-351	-362
비지배주주지분	10	10	10	12	12
자본총계	344	356	438	412	396
비이자부채	633	617	544	822	867
총차입금	663	594	466	481	567
순차입금	475	333	265	283	333

현금흐름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업활동 현금흐름	-123	144	33	-103	-5
당기순이익	-107	12	-37	-4	-4
비현금성 비용 및 수익	108	70	126	41	5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0	0	12	10	15
무형자산상각비	7	0	2	2	1
운전자본변동	-91	88	-22	-110	-28
매출채권등의 감소	25	75	49	-50	-68
재고자산의 감소	-5	69	11	-75	16
매입채무등의 증가	-45	-41	-73	50	107
기타 영업현금흐름	-33	-26	-34	-30	-30
투자활동 현금흐름	12	-36	-51	16	-2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	15	13	9	5
유형자산의 감소	0	0	1	0	1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15	-2	0	2	1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9	-5	-4	6	-5
기타	31	-44	-61	-1	-4
재무활동 현금흐름	44	-57	-46	96	45
차입금의 증가(감소)	30	0	0	34	55
자본의 증가	0	0	0	0	0
기타	14	-57	-46	62	-10
기타 및 조정	0	0	0	0	1
현금의 증가	-67	51	-64	9	39
기초현금	201	134	185	121	130
기말현금	134	185	121	130	169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

	2015	2016	2017	2018	2019
주당지표(원)					
EPS	-617	66	-209	-23	-21
BPS	1,973	2,037	2,231	2,087	2,000
DPS	0	0	0	0	0
밸류에이션(배)					
PER	-	61.2	-	-	-
PBR	2.5	2.0	2.2	1.4	1.1
EV/EBITDA	-96.3	20.7	26.1	20.4	15.1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은 지배주주순의 및 지배주주지분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성장성지표(%)					
매출증가율	-0.3	-1.5	1.2	0.9	-4.4
EPS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수익성지표(%)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ROE	-26.9	3.3	-9.7	-1.1	-1.0
ROA	-6.3	0.7	-2.5	-0.2	-0.2
ROIC	-13.6	1.6	-5.4	-0.5	-0.5

안정성 및 활동성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376.1	340.2	230.6	316.5	362.5
순차입금 비율(%)	138.1	93.5	60.5	68.7	84.1
이자보상배율(배)	0.0	0.0	0.0	0.0	0.0
활동성지표(배)					
매출채권회전율	2.9	3.0	3.3	3.5	3.1
재고자산회전율	7.3	8.2	9.5	8.6	7.5
총자산회전율	1.5	1.6	1.7	1.6	1.4

케어랩스 (263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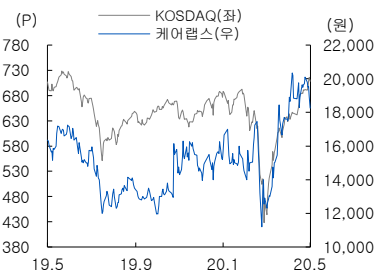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가 (5/22)	18,250원
KOSDAQ (5/22)	708.58pt
시가총액	1,173억원
발행주식수	7,012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20,350원
최저가	11,200원
60일 평균거래대금	134억원
외국인 지분율	0.4%
배당수익률 (2020F)	0.0%

주주구성

데일리블록체인 외10 인	36.80%
녹십자홀딩스 외 1 인	6.73%

주가상승률	1M	6M	12M
상대기준	-7%	14%	11%
절대기준	3%	28%	12%



B to C 플랫폼 역량 강화

- 케어랩스의 사업별 매출비중(2019년)은 헬스케어 미디어 32.6%, 헬스케어솔루션 14.7%, 디지털마케팅 41.1%, 소셜네트워크 11.2%, 부동산임대 0.3%로 구성된다. 동사의 핵심사업부인 헬스케어 미디어 사업부로 분류되는 플랫폼서비스는 굿닥(모바일 의료정보서비스), 바비톡(뷰티케어 정보 커뮤니티), 메디잡(의료분야 온라인 리크루팅)이 있다.
- 굿닥의 MAU(월평균 이용자수)는 2019년 기준으로 130만명 수준이었다. 마스크스캐너 서비스 이후에 굿닥의 MAU가 130만명 수준에서 300만명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굿닥이 의료정보 서비스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은 45% 수준으로 대표 경쟁 플랫폼으로는 유비케어에서 제공하는 똑닥(M/S 약 35%)이 있다.
- 굿닥이 추구하는 의료서비스는 증상단계부터 진료 그리고 처방 및 사후관리까지 전영역에 대한 서비스이다. AHAS(Advanced Healthcare Assistance System)의 서비스단계를 보면 1)병원탐색 & 예약접수(모바일/키오스트), 2)병원 진료전 알림서비스, 3)모바일 처방전 발급 및 결제, 4)실손 의료보험 간편청구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현재는 AHAS의 2단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구현가능한 기술 노하우는 확보하고 있지만 법적규제로 인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관련 영역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관련 산업이 계단식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억원, %, 배)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	-	393	544	683
영업이익	-	-	63	51	36
세전이익	-	-	61	43	5
지배주주순이익	-	-	48	36	6
EPS(원)	-	-	1,094	620	92
증가율(%)	-	-	-	-43.3	-85.2
영업이익률(%)	-	-	16.0	9.4	5.3
순이익률(%)	-	-	13.0	7.0	0.7
ROE(%)	-	-	20.4	8.5	1.0
PER	-	-	-	30.9	166.1
PBR	-	-	-	2.0	1.6
EV/EBITDA	-	-	-	19.7	13.9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케어랩스 (263700)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	-	393	544	683
증가율(%)	-	-	na	38.2	25.6
매출원가	-	-	0	0	0
매출총이익	-	-	393	544	683
매출총이익률 (%)	-	-	100.0	100.0	100.0
판매비	-	-	331	493	647
판매비율(%)	-	-	84.2	90.6	94.7
영업이익	-	-	63	51	36
증가율(%)	-	-	na	-18.9	-28.7
영업이익률(%)	-	-	16.0	9.4	5.3
순금융손익	-	-	-1	-4	-12
이자손익	-	-	-1	-5	-12
기타	-	-	0	1	0
기타영업외손익	-	-	-1	-3	-16
종속/관계기업손익	-	-	0	-1	-4
세전이익	-	-	61	43	5
법인세	-	-	9	4	-1
법인세율	-	-	14.8	9.3	-20.0
계속사업이익	-	-	51	38	5
중단사업손익	-	-	0	0	0
당기순이익	-	-	51	38	5
증가율(%)	-	-	na	-24.9	-86.2
당기순이익률 (%)	-	-	13.0	7.0	0.7
지배주주당기순이익	-	-	48	36	6
기타포괄이익	-	-	0	0	0
총포괄이익	-	-	51	39	5
EBITDA	-	-	69	63	59
증가율(%)	-	-	na	-8.5	-5.6
EBITDA마진율(%)	-	-	17.6	11.6	8.6

재무상태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	-	157	511	475
현금및현금성자산	-	-	33	349	181
유가증권	-	-	73	83	187
매출채권	-	-	27	41	59
재고자산	-	-	0	2	6
비유동자산	-	-	241	735	796
유형자산	-	-	42	201	224
무형자산	-	-	190	321	362
투자자산	-	-	5	171	165
자산총계	-	-	398	1,246	1,271
유동부채	-	-	76	142	43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3	7	10
단기차입금	-	-	20	0	8
유동성장기부채	-	-	8	0	1
비유동부채	-	-	54	464	160
사채	-	-	42	304	0
장기차입금	-	-	0	140	143
부채총계	-	-	129	606	596
지배주주지분	-	-	235	597	623
자본금	-	-	23	31	32
자본잉여금	-	-	124	444	475
자본조정등	-	-	2	5	-8
기타포괄이익누계액	-	-	0	0	0
이익잉여금	-	-	85	117	123
비지배주주지분	-	-	34	43	52
자본총계	-	-	269	640	675
비이자부채	-	-	59	162	440
총차입금	-	-	70	444	156
순차입금	-	-	-36	12	-211

현금흐름표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업활동 현금흐름	-	-	29	36	45
당기순이익	-	-	51	38	5
비현금성 비용 및 수익	-	-	19	29	53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	1	3	12
무형자산상각비	-	-	5	9	11
운전자본변동	-	-	-34	-20	-8
매출채권등의 감소	-	-	-13	-8	-10
재고자산의 감소	-	-	0	-2	-3
매입채무등의 증가	-	-	0	2	-1
기타 영업현금흐름	-	-	-7	-11	-5
투자활동 현금흐름	-	-	-120	-425	-175
유형자산의 증가(CAPEX)	-	-	2	162	15
유형자산의 감소	-	-	0	0	0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	-	-13	-21	-11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	-	2	-204	-28
기타	-	-	-111	-362	-151
재무활동 현금흐름	-	-	91	704	-39
차입금의 증가(감소)	-	-	17	112	0
자본의 증가	-	-	70	253	31
기타	-	-	4	339	-70
기타 및 조정	-	-	1	1	0
현금의 증가	-	-	1	316	-169
기초현금	-	-	33	33	349
기말현금	-	-	33	349	181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

	2015	2016	2017	2018	2019
주당지표(원)					
EPS	-	-	1,094	620	92
BPS	-	-	5,059	9,685	9,689
DPS	-	-	0	0	0
밸류에이션(배)					
PER	-	-	-	30.9	166.1
PBR	-	-	-	2.0	1.6
EV/EBITDA	-	-	-	19.7	13.9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은 지배주주순이익 및 지배주주지분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성장성지표(%)					
매출증가율	-	-	-	38.2	25.6
EPS증가율	-	-	-	-43.3	-85.2
수익성지표(%)					
배당수익률	-	-	0.0	0.0	0.0
ROE	-	-	20.4	8.5	1.0
ROA	-	-	12.9	4.7	0.4
ROIC	-	-	22.6	11.3	1.5

안정성 및 활동성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	-	48.2	94.6	88.4
순차입금 비율(%)	-	-	-13.4	1.9	-31.3
이자보상배율(배)	-	-	0.0	0.0	0.0
활동성지표(배)					
매출채권회전율	-	-	-	16.0	13.7
재고자산회전율	-	-	-	623.0	175.0
총자산회전율	-	-	-	0.7	0.5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 사항 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적극매수 40% ~	매수 15% ~	중립 -15% ~ 15%	매도 ~ -15%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바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19.04.01~2020.03.31)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34	89.9
중립	15	10.1
매도	0	0



IBKS Research Center

성명	직급	담당업종	전화	이메일
정용택	상무	총괄	6915-5701	ytjeong0815@ibks.com

투자분석부

정용택	상무	Economy	6915-5701	ytjeong0815@ibks.com
박옥희	연구위원	Global Asset Allocation	6915-5672	marble@ibks.com
김지나	연구위원	Fixed Income	6915-5678	jnkim0526@ibks.com
김예은	연구위원	Strategy	6915-5681	yekim@ibks.com
안소은	선임연구원	Global Strategy	6915-5657	ase331@ibks.com
이정빈	선임연구원	Quant	6915-5654	jblee3280@ibks.com
김인식	연구원	Junior Strategy	6915-5472	kds4539@ibks.com

기업분석부

김장원	이사	통신서비스/지주	6915-5661	jwkim@ibks.com
김운호	이사	반도체/디스플레이	6915-5656	unokim88@ibks.com
이상현	수석연구위원	자동차/기계	6915-5662	coolcat.auto@ibks.com
김은갑	수석연구위원	은행	6915-5660	egab@ibks.com
안지영	수석연구위원	유통/화장품	6915-5675	jyahn@ibks.com
박용희	연구위원	건설/건자재/유틸리티/미디어/엔터	6915-5651	yhporea2005@ibks.com
함형도	선임연구원	정유/화학, 철강/금속	6915-5471	hdham@ibks.com

중소기업분석부

유욱재	상무보	중소기업분석	6915-5323	oneupyoo@ibks.com
이민희	이사	중소기업분석	6915-5682	mhl3467@ibks.com
이승훈	연구위원	인터넷/게임, 중소기업분석	6915-5680	dozed@ibks.com
문경준	연구위원	제약/바이오, 중소기업분석	6915-5776	juninearth@ibks.com
김태현	연구위원	음식료, 중소기업분석	6915-5658	kith0923@ibks.com
이건재	연구위원	IT(장비/소재), 중소기업분석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정책금융의 리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번호 02-6915-5000
고객만족팀 1588-0030, 1544-0050

영업부	02) 6915-2626	IBK WM센터 강남	02) 2057-9300
분당센터	031) 705-3600	IBK WM센터 반포자이	02) 3481-6900
인천센터	032) 427-1122	IBK WM센터 목동	02) 2062-3002
대구센터(IBK WM센터 대구)	053) 752-3535	IBK WM센터 역삼	02) 556-4999
서초센터	02) 3486-8888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2) 798-1030
강남센터	02) 2051-5858	IBK WM센터 중계동	02) 948-0270
IBK WM센터 일산	031) 904-3450	IBK WM센터 울산	052) 271-3050
IBK WM센터 광주	062) 382-6611	IBK WM센터 창원	055) 282-1650
부산서면센터	051) 805-2900	IBK WM센터 천안	041) 569-8130
IBK WM센터 부산	051) 741-8810	IBK WM센터 판교	031) 724-2630
IBK WM센터 한남동	02) 796-8500	IBK WM센터 남동공단	032) 822-6200
IBK WM센터 시화공단	031) 498-7900	IBK WM센터 평촌	031) 476-1020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